금주 법구

돌 사람이 피리불고
나무 사람이 춤고 있음이여
범부들은 자기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계일 뿐 나의 분수가 아니라고 한다.

-경허집-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삼선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 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0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 338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화·단청 기록영화化

사찰이나 궁궐 등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넣는 단청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미술의 하나다. 고도의 회화적 기량이 요구되는 까닭에 단청은 미술의 원초적 모습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우리 회화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성행했던 단청문화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은 우리 단청의 보존과 계승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 준다.

이러한 단청과 불화의 전통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원형기록물 제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영화제작에 불화의 대가인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스님(93세)과 석정스님(74세)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만봉스님은 지난 8월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봉원사에서 초(草) 그리기부터 색칠하기까지 단청의 모든 과정을 담는 작업에 들어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만봉스님은 이번 작업 과정에서도 한치의 땔림도 없이 최고수의 경지를 드러내 보여 관계자들을 감탄시켰다 한다.

석정스님은 지난 9월부터 통도사성보박물관 명선당에서 매주 토요일 영산회상도 탱화 제작의 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석정스님은 단순히 탱화 제작과정만 뿐만 아니라, 탱화의 완성이후 배접하는 방법과 복장, 점안식에 이르는 모든 의식의 과정을 기록영화로 담아내기 위한 작업을 직접 해 보이고 있다.

석정스님의 기록영화 작업을 맡고 있는 무형문화재 자문위원 곽동해씨(불화가)는 "현재 탱화의 제작에서 점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도 드물고, 이들 노장들이 돌



아가신 이후에는 제대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기록영화로 남기기 위해 스님께 부탁을 드렸고, 스님께서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고 힘든 작업을 흔쾌히 해 주신다"고 말했다.

보존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가 비단 단청분야 뿐 만이 아니다. 영산재나 불상조각, 사원건축 등 불교문화는 물론이고, 오늘날 그 맥이 끊어져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작업들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은자(취재 2부 기자)

총체극 '고려의 아침' 2002년 월드컵 문화예술공연으로

대장경 평화염원 '세계로'

팔만대장경에 담긴 평화와 인고의 정신이 인류 보편의 가치로 세계인의 가슴에 담긴다. 초대형 총체음악극 '고려의 아침'이 2002년 월드컵 기념 공연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음악, 연극, 무용 등 독립된 무대예술의 여러 장르를 아울렀기 때문에 총체음악극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 작품은 2002년 5월 25일~30

내년 5월 올림픽공원서

일 서울 올림픽공원 야외무대(예정)에서 막을 올릴 예정으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팔만대장경의 조성 동기와 과정이 소재이자 주제다.

고려시대의 불교 사상과 미학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펼치는 '고려의 아침'은 13세기 한국 문화와 평화 사상을 인류 공통의 언어인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제작의도다. 새벽 산사의 풍경소리, 실크로드를 달려오는 몽고군의 말발굽소리, 아수라의 비명과 그에 대비되는 천상의 합창 등 '고려의 아침'에서 선보일 음악은 국악선율의 비장한 정서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정제된 선율이 어우러진다. 팔만대장경속에 담긴 진정한 평화의 힘을 노래하고, 고려인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를 재현함으로써, 파괴와 경쟁으로 물든 21세기 인류를 향해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과 공존의 의미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예술단 신선희 단장이 극본을 쓰고, 이병훈 박일규 신선희 씨가 공동연출하는 '고려의 아침'은 제1부에서 몽고군의 침략을 탐돌이 하는 호국법회로 극복하려는 고려인들의 모습과 고려 혜명공주와 팔각수 거인의 사랑을 그려낸다. 제2부에서는 고려 연등회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완성을 앞둔 팔만대장경 판경당에 몽고군이 불을 지르자 대장경판을 구하려 불길 속에 들어가 목숨을 잃은 혜명공주와 대장경 완성을 위해 배를 타고 강화를 떠나 남해로 향하는 팔각수들의 이야기로 막을 내린다.

인류 공존의 의미 '부각'

한편 '고려의 아침'은 월드컵 개막 직전에 펼쳐질 내년 본 공연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야외무대에서 시범공연으로 제1부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에서 '고려의 아침'은 무용과 음악을 통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극중 인물들 간의 갈등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는 처진 느낌을 주는 안무 등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예술단 연출진은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출연진을 보강하는 한편 아직 완성되지 않은 2부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 세계인에게 선보일 '고려의 아침'은 가장 한국적인 소재와 형식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수험생 부모의 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북한산 삼천사에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다. 수능시험일이 가까워 오면서 전국 대부분 사찰에는 수능기도를 올리는 부모들의 불심이 모이지고 있다. 삼천사=고영배 기자

공무원 불자 네트워크 추진

공불련 1주년 법회 홈페이지 오픈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140여 불자회 2천여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6~7일 합천 해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1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불련은 공식 홈페이지(gongbul.or.kr)를 오픈하고, 공불련을 상징하는 연꽃 모양의 마크와 뱃지를 제정하는 불자실명제를 천명, 온 오프(On Off) 라인 상에서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을 하나로 묶고 군 옵 권 단위까지 불자회를 확대시키겠다는 제 2 도약을 결의했다.

6개월간의 제작 과정을 통해 선보인 홈페이지는 △단체소개 △불교기해하기 △사찰을 찾아서 △사이버법문 등의 메뉴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공불련은 공무원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단체를 소개하는 등의 신행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공불련은 '단체소개' 메뉴를 통해 정부부처 및 각급 행정기관 내 불자회 유무를 밝혀, 불자회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아직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고 있는 각 부처 불자회 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철야정진, 반야심경 경판 정대불사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 공불련 창립 1주년 기념법회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와 의미를 더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장 직능신행단체의 기념법회에 축사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차후 정부부처 및 각급 기관 안팎에서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문화유산해설사 영역별 세분화 하자"

조계종, 문화부에 제의

조계종은 현재 각 지자체가 문화유적지에 배치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각 영역별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계종은 5일 문화관광부에 입법 예고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 제46조 5항과 6항에 규정된 '문화유산해설사'를 불교, 유교, 민속, 무형 등 각 문화유적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개정입법추진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화해설사에 대한 교육도 각 영역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원우 기자

추석연휴로 금주 12면 감면발행

장 군 죽 비

◇돈 없는 스님은 제자 두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 "스님도 '소유' 허용해야 한다." 돈이 힘쓰는 구조부터 고치자. (2면)

◇첫 돌 맞는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 47개 단체에서 140여 개 단체 연합체로 급성장. 불심 담은 공무로 보살도 실천하기를. (3면)

◇영취산서 설법하시는 부처님, 영산재에 실려 세계를 누빈다. 누구나 '지금 여기'서 부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한국불교의 힘. (5면)

◇한국인 평균 수명 74.9세. 노령화 사회로 진입, 노년층 신도가 많은 한국불교, 노인들의 팔다리가 되어드릴 준비는 돼 있는가? (10면)

중국 하남·산시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자 '중국 불교문화기행'을 기획해 하남성 지방의 고도 정주, 낙양, 등봉을 비롯해 혜초, 원측 스님 등 신라 고승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산시성 서안의 불교 유적을 찾아갑니다.

중국 무술영화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 불상들을 참배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에서는 원나라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시성 서안에서는 진시왕릉인 병마용을 비롯해 부처님 진신지골사리가 모셔진 법문사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양귀비의 자취가 어린 화청지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또 북경에서는 천안문과 이화원, 만리장성 등도 답사합니다.

- 일정: 10월22일(월)~10월27일(토) (5박6일)
- 참가비: 95만원(포함내역: 공항세, 비자비/ 단 여권 수속 비는 별도)
- 접수및문의: 02)333-8091(담당: 김지훈, 윤자영)
- 접수기간: 10월6일(토)까지 (여권 소지자는 1주일 연장 가능)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개시

하나은행비자카드 특전+재들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은행이나 기타 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록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지급됩니다. ● 은혜장, 교도소 방범 등 부처님의 법력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갑작이불우이웃 등 어려 대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정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실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뺑소니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기 연회비 면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사 설

재가불교 인력양성 '환영'

재가 불자들의 운동이 불교 전문인력 양성에까지 그 힘을 뻗쳤다. 그 동안 참신한 재가불자 운동으로 불교계에 바람을 일으켜 온 참여불교 재가연대가 부설 교육기관으로 참여불교 아카데미를 이달 31일 발족시키고 그를 통해 불교계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불교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 동안 승속의 조화로운 협력을 위해 불교 종단운영 등에 재가불자의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시행되었던 일들은 있었다. 이에 비해 이번 재가연대의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분명 차원이 다른 새로운 걸음이다. 승단에 협력하는 수준으로의 참여를 요구하던 소극적인 자세를 벗고, 승속을 뛰어넘어 미래불교를 이끌어 나갈 핵심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는 대승적인 선회를 이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가불자 운동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은 물론이요 불교계의 앞날에 희망의 빛을 던지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불교계의 현황을 보면 이번 일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선구적인 여러 전문 영역들은 한정된 소수의 의식있는 이들의 희생적인 활동 위에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는 커녕, 이 분야에 앞선 타 종교의 운동 모델을 뒤따라가기에 힘겨울 지경이다. 정확하게 이 맥을 짚어내고, 구체적인 계획 아래 과감한 실행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불교계의 의식을 한 차원 높이며, 불교운동의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이 올바른 방향타에 불교계의 힘이 실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승속을 뛰어 넘어 이 사업이 불교계를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결실로 드러나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음지에서 희생적으로 활동해온 선구적 전문인들이 힘을 얻고,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많은 후배 전문 인력들로 미래 불교가 아름답게 장엄되도록 하는 일에 불교계와 모든 불자들이 나서야 한다.

불교문화의 대사회 저력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나 국가의 언어 · 종교 · 관습 등의 총화다. 좁게는 문학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를 일컫기도 하고, 종교문화나 언어문화와 같은 하위 범주 설정도 가능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교통문화' 또는 '행락문화' 등과 같은 표현을 쓸 때는 '삶의 양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처럼 '문화'라는 말의 의미는 다중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문화라는 말의 다의성이 아니라 문화의 여러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종교의 경우는 도덕이나 사상은 물론 예술 영역에까지 넓고 깊게 영향을 끼친다.

누구나 알고 있듯 160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불교는 한국 문화의 전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유형문화재의 60%가 불교 문화재일 뿐이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그 영향은 쉽게 확인된다. '야단법석'이나 '이판사판', '화두'와 같은 말들도 불가에서 나왔다. 사찰건축이나 불교미술 분야는 우리 전통 건축과 미술의 맥을 잇고 있다. '한국 문화 정체성의 고갱이는 불교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불교 문화의 전통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다시 꽃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2002년 월드컵 개막 기념 공연으로 팔만대장경의 조성 동기와 과정을 그린 '고려의 아침'이 총체음악극이라는 형식으로 세계인을 맞는다. 특히 핵심적인 메시지가 '평화'라고 하니, 광기와 폭력의 세기로 기록될지 모를 21세기의 우울한 시작을 희망으로 돌려놓을 계기가 되기를 발원해 본다.

또한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재현한 영산재가 세계 곳곳의 무대에 서고 있고, 석정 스님의 탱화와 만봉 스님의 단청 작업 과정이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기록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에 담기고 있다고 한다.

문화는 삶의 표현이자 그릇이다. 따라서 삶과 유리된, 삶을 고양시키지 못하는 화석화된 문화는 골동품보다 썩 나을 게 없다. 삶과 얼을 담아내야 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의 불교·문화는 그것을 해 내고 있다.

동화사·월정사·조계사 등 '역사 재조명' 세미나

정체성 찾기 나섰다

사찰 위상 높이고 역할 정립 기대

송광사 동화사 월정사 조계사 화엄사 등이 해당 사찰의 역사와 인물, 사상 등을 조명하는 한편 지역 문화에 끼친 영향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사찰 정체성 찾기에 나선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는 개산1508주년을 기념해 법륜불자교수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동화사 대불전에서 '동화사의 역사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화사 가풍과 종지, 역사와 문화, 인물과 사상, 풍수 및 가람의 특징 등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화사의 특징을 재조명함으로써 사찰 위상을 높이고, 대구 · 경북 시민들의 정신적 구심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주지 현해)는 12일 오대산 호텔에서 '강원도 불교문화재의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원도의 문화 · 학술적 가치와 그 속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강원불교의 의미'를 비롯해 상원사와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서적 · 조각 · 회화 · 공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조계사(주지 지홍)도 창건 92주년 및 조선불교조계종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24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 조계종 출범의 역사적 의미 고찰을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과 한국 대표사찰로서의 위상 점검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식씨(대각사상연구원)가 '조선불교조계종 출범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박회승씨(조계종 총무원 기획과장)가 '조선불교조계종 창립의 주역 연구', 손성 교수(동국대)가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또한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는 송광사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던 보정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14일 사자루에서 개최하고, 구례 화엄사(주지 종걸)도 26일 각황전에서 '화엄석경 보존 복원 학술세미나'를 열고 보물 1040호로 지정된 화엄석경의 보존과 복원방안을 모색한다.

이같은 일련의 행사와 관련해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는 "1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사찰들은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과 한국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전제하고 "그 역사를 불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문화축제로 환생하는 보우스님

봉은사 17~25일 인경 · 방생 · 전시행사

봉은사가 허응당 보우 스님의 뜻을 기리고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불자와 시민에게 일깨우기 위해 17일부터 25일까지 제9회 보우제를 개최한다.

올해 보우제는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것이 특징. 먼저 17일 진행되는 '생명방생' 행사에서는 사중 스님과 종무원 및 신도회 임원, 신도 및 일반인들이 참여해 헌혈과 장기기증 서약을 하게 된다.

보우제 기간동안에 열리는 도자기 체험전에서는 봉은사 인근 초중고생들과 외국인까지 참여해 직접 도자기를 빚으며 우리 자기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인경전시 및 체험전에서는 불교 인쇄물의 역사를 살펴보고 직접 인경을 함으로써 불심을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통등 체험전 역시 팔각등 연꽃등 등 전통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명우 기자

환경 · 종교편향특위 포교사단 이달 구성

포교사단은 최근 수덕사에서 제3차 중앙운영회의를 열고 환경특별위원회와 종교편향대책특별위원회를 이달중 구성키로 결의했다.

포교사단은 팀이 구성되는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환경위원회의 경우 월1회 모임을 정례화하고, 년 1회 이상 환경관련 정기 강좌를 개설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관련단체와 교류를 추진하고, 환경관련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등 환경을 통한 포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스님 최소한 소유 인정"

승가복지 워크숍 이색주장

시대에 따라 소유개념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스님들에게 무소유는 적절하지 않고, 소유의 최소화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재가연대가 5일 포교원 회의실에게 개최한 '교단 경제윤리 및 승가복지 제도화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제에 나선 권경술 새생각실천회 대표는 "소유의 범위를 가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는 개개 승려들의 소유 격차가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승가 소유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분배구조 취약"

"사찰 법인형태 운영"

권씨는 그 대안으로 △승가의 공동소유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승가공동체 존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재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 법력으로 인정받는 지도자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도제양성을 승가공동소유를 로 부담함으로써 돈으로 연결되는 사제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상의 가르침이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무한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승려야 말로 자본주의를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권씨는 승려가 자본주의 시대에 능력을 발휘해 축적한 부는 승가전체의 소유물로 귀속시키되 우대조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생활과 수행에 필요한 재물을 절대 평등하게 배분하되, 법력을 인정받는 승려에게는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는 '절대 평등 내에서의 상대적 차등'론을 제기했다.

한편 김승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조계종단의 재정 수입구조나 관리 및 분배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대만의 자제공덕회처럼 사찰이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사회적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스님들의 복지는 최저생활과 교단이 존속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육 · 의료 등 모든 스님복지와 관련한 재정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명우 기자

진각종 가을 스승 강공

18·19일, '스승상정립' 주제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8-19일 양일간 서울 성북구 총인원에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정사 · 전수 정교 등 모든 교역자들이 참가하는 진기 55년도 가을 스승강공을 봉행한다.

'진각 스승상 정립'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가을강공은 혜정 교육원장의 주제강연에 이어 지광종사의 '회사금의 정신', 도혼 종사의 '교법실천과 수행법' 등의 강좌가 있게 된다.

특히 진각종은 이번 강공을 통해 반세기가 넘는 종단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물론 시대변화에 맞춰 종단상을 정립하고 참스승상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가을강공에서는 또 각종 불사의식의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해 각 교구청별로 1인을 선정하여 각각 30분씩 공식불사 의식을 집전토록 하는 공식 불사의식 시간도 마련된다. 가을강공에 이어 19일 오후 2시 30분 총인원 대강당에서는 선대스승 추선불사도 함께 봉행된다.

한편 총지종(통리원장 혜암)도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 총지사에서 제58회 추계강공을 개최한다. 총지종은 이날 강공에서 사회복지재단 이사회를 비롯 원의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여는 한편, 선대열반스승 추선불사도 봉행할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고침 지난 10월 3일자(337호) 1면 머릿기사 제목중 '국빈방문'을 '정부초청 방문'으로 바로잡습니다.

달마스님 철학 강좌

"시간과 운명"의 진리를 저술한 "달마대사의 사주비전" 저자 달마스님 초청 특강



前 韓國易學 哲學評論家
韓國公社 理事 歷任
交通저널 編輯局長 歷任
韓國易學 編輯局長 歷任
現 大韓佛敎 達磨布敎院 院長
저서 時間과 運命
僧伽와 菩薩心
부처님의 因緣法
達磨대사의 四柱秘傳
達磨大師의 禪과 명상법
外 다수 집필

達磨스님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達磨大師의 四柱秘傳」



목 차 -
1. 우주의 기운
2. 역의시원
3. 시간과 운명
4. 사주분석과 해석
5. 인연법
6. 작명비법

定價 35,000원

부 록
作名法(좋은 이름 짓는 비법)
大法院 人名用 漢字 2,962字 수록

· 서 울 : 기업은행 012-027395-01-017
· 부 산 : 기업은행 097-034764-01-014
예금주 달마사 (입금후 전화 주십시오)

卍達磨寺 051-301-4949 011-301-4949

특강과목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불교와 철학 • 인생상담 비법 전수 • 운명학 원론 • 한국의 풍수 [양택,음택]

강의시간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지역 구분	강 의 기 간	요 일	강 의 기 간
서 울	매월 1일부터 2개월간	매주 월	오후 2:10~4:10
안 동	매월 2일부터 2개월간	매주 화	오후 2:10~4:10
부 산	매월 3일부터 2개월간	매주 금	오후 2:10~4:10

※ 본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강의대상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승려 [비구니]
각종 불교대학을 이수한 불자 및 일반인 男.女

수 강 료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2개월분 강의료 [총 40만원]
※ 입금후 전화 요망

접수마감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서울 매월 23일 까지 선착순 마감 60명
안동 매월 19일 까지 선착순 마감 30명
부산 매월 20일 까지 선착순 마감 50명

접수문의
서울 노원구 불교회관철학강의실 02)999-5551
안동 명륜동 안동시민회관강의실 054)851-5558
부산 사상구 불교철학대학강의실 051)328-5551

부산 · 여사원 모집(고졸이상)
· 컴퓨터, 맥캔토시 가능자
· 25세~35세까지

목어

"주지스님, 부탁합니다"



주지스님 하면 그 절의 최고 책임자이며 어른이다. 물론 규모가 아주 큰 사찰에는 주지스님 위로도 방장이나 조실, 선덕, 유나 등 많은 큰스님들이 계신다. 그러나 행정적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주지다. 따라서 사찰의 면모가 주지스님에 의해 좌우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느 절에 가든 주지스님 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주지 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주지스님은 절을 지켜야 하는데 도무지 주지스님 뵙기가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지스님들은 무엇이 그렇게 바빠 절을 비우는 날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 주지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치러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은 짐작이 간다. 사찰운영에서 신도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산더미와 같다는 어느 스님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더러는 부재중인 주지스님의 행적이 묘연할 때도 있다고 한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무슨 이유에선지 어느 호텔이나 유흥지에서 며칠씩 머무는 적도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주지들은 여느 재벌 못지않은 존씀씀이를 보인다고도 한다.

사찰의 돈은 신도들의 희사금이나 전통사찰 입장료가 대부분이다. 어느 스님이건 자신의 노동력으로 부를 누리게 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그 돈은 그야말로 소중한 삼보정재(三寶淨財)이다. 이러한 돈이 부처님이나 불자들을 위해서 쓰이느냐, 개인적 유흥비용으로 탕진되느냐는 주지스님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어느 절의 주지스님은 주지부임 의식인 진산식을 요란하게 치르지 않고 조촐한 기도나 법회로 대신했다고 한다.이런 스님들이라면 일단 주지스님으로서의 덕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주지스님들, 부탁합니다.

제발 절 좀 지키시고 삼보정재를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 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불교학 연구 성과 공유 기회로"

내년 불교학 결집대회 준비 목정배 교수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과 학회, 연구원들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막상 이들이 함께 모여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목정배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한국불교학회장)는 요즘 불교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내년 5월 3~4일 동국대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불교학 대회인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회장을 맡은 목 교수는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야말로 "1630년 역사를 가진 한국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부처님께 학문적으로 헌공하는 일인 동시에 한국 불교가 가진 심천(深淺)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대회 의미를 설명했다.

내년 대회에는 지방승가대학을 포함한 각 대학의 강사 이상, 강원 강사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 등 200명이 넘는 불교학 연구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차례 준비 모임을 가진 지금까지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등 30개가 넘는 학술단체와 연구원, 대학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최근에는 기획, 총무, 학술, 편집, 섭외, 홍보, 전산, 국제부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를 위한 홈페이지(www.skb.or.kr)를 개설하는 등 대회 준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300여 학술단체 참가 뜻 밝혀

"한국불교 도약 발전 디딤돌"

"지금까지 불교학 관련 박사만 160명 이상이 배출됐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400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제한 목 교수는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불교학 결집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목정배 교수.

무엇보다 이제 불교학 연구가 개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 교수의 생각이다. 목 교수는 "지금까지가 개인기의 시대였다면 이제 그 개인기를 모아 한국불교의 총체적 힘으로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한국 불교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결집대회는 한국 불교가 신앙적 불교에서 학해(學解)적 불교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일주문



심우사서 보살계 법문

고산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22일 오전 11시 거창포교당 심우사에서 열리는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법문한다.



대충대종사 8주기 열반재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9일 오전 10시 구인사에서 2대 종정 남대충 대종사 스님의 8주기 열반 대재를 봉행한다.



10월 다보법회 법문

인환 동국대 선학과 명예교수는 2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제2기 불교인권 강좌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는 10일부터 11월21일까지 '제2기 불교인권학교 강좌'를 개설한다.



등광사 부처님 점안식

무원 태백 등광사 주지는 13일 오전 10시 등광사에서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33)581-6144

세종문화상 받은 김민수 교수

"한글의 독창성 세계에 알려야죠"



"세계화시대라고 해서 영어만 강조해 한글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 세종문화상을 수상한 김민수 교수(75 · 고려대 명예교수)는 수상의 기쁨에 앞서 한글이 영어에 침잠돼 가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30여년동안 국어국문학회와 국어학회를 창립해 국어학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왔던 김 교수는 특히 81년에 이중언어학회를 만들어 해외 교포들의 모국어 교육과 북한언어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 조선어학회 한글강습회 파견 강사로 지난 1945년에는 한달간 백양사에서 한글을 강의하는 등 한글문화보급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백양사 강습 수료후에는 한글강사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강습생들이 해당지역과 사찰로 돌아가 한글을 가르쳐 파급효과가 대단했지요." 김교수는 현재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한 두번 읽거나 들으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문법책과 CD를 만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수익금 대학 운영기금으로"

승가대 기금마련 서각전 여는 운천스님

"어려움에 직면한 모교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염원하며 이번 서각전을 준비했습니다"

13~2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중앙승가대 운영기금마련 서각전'을 준비한 중앙승가대 서각회 회장 운천스님의 말이다.

이번 서각전은 중앙승가대 30여 학인스님들이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는 틈틈이 익혀온 서각솜씨를 선보이는 자리다. 불교의 경전과 불보살, 동자승의 모습을 소재로 한 80여점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생활공예공모대전 서각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종교예술제 서각부분에도 추천작가로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운천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 20여점을 내 놓기도 했다. 운천스님은 "전시회의 수익금은 중앙승가대 운영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상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11-227-9311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공불련 1년 급성장 역군들

박준영 · 노옥섭 씨등 10여명

남다른 열정의 결실



◇박준영 씨



◇노옥섭 씨



◇송도근 씨



◇김중겸 씨

7일 창립 1주년을 맞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창립 당시 47개 불자회에서 현재 140개가 넘는 불자회로 급성장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공불련에 불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불련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불련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헌신해온 이들은 누구일까?

대부분의 공무원 불자들은 공불련 회장이자 감사원불자회 회장인 노옥섭 감사원 사무총장과 前 청와대불자회장인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을 우선적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노옥섭 회장은 안홍부 공불련 사무국장과 함께 연합회를 결성하고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 · 추진해 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박준영 처장 역시 당시 명목상 뿐이던 청와대불자회의 회장을 맡아 법회개최에 열성적으로 움직이며 다른 공무원 불자회 창립에 많은 격려를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공직사회에서 불자로 알려지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선입견'을 불식시켰다. 많은 공무원 불자들이 "청와대불자회와 국정원불자회의 활발한 신행 활동에 자극을 받았다"고 한결같이 말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나는 불자' 드러내기

공직자 불자상 정립

여기에 중앙부처 각 불자회의 연이은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무총리실불자회 전충렬 회장, 농림부불자회 나승렬 회장, 건설교통부불자회 송도근 회장, 전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 등도 공불련 발전에 큰 몫을 했다. 전충렬 회장은 매월 정기법회와 함께 교리와 사찰예절 공부를 통해, 신심을 다지게 해 불자로서 자긍심을 높게 했고 나승렬 회장은 한국선의 진수를 배우는 선법문을 합동으로 꾸준히 여는 등 불자회원들의 수행풍토를 크게 진작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불자회 등 과천청사 내 중앙부처 불자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교통부 불자회 송도근 회장 역시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등을 꾸준히 추진해 신심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은 법회나 사찰순례는 물론 찬불반, 서예반 등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을 배가 시키고 경찰청 인트라넷에 홈페이지를 구축,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불자회 결성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팔공산 동화사 개산 1508년 기념 불교학술대회

팔공산 동화사의 역사와 사상

불기2545(2001)년 10월 20일(토) 오후 2시~6시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전

초 대 합 니 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팔공산 동화사의 개산대재에 즈음하여 21세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법륜불자교수회와 공동으로 동화사의 가풍, 역사, 문화, 인물, 사상, 가람의 특징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팔공산 동화사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불자들의 신심 함양과 일반 시민들의 정신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리는 불교학술대회가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교신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법당을 가득 메우는 빛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기 2545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 덕 합장
법륜불자교수회 회장 배 동호 합장

불교학술대회 등록 및 접수(13:30~14:00), 본행사(14:00~18:00)

제1부 : 개회식
제2부 : 논문발표 사회 :강수균 교수(대구대학교)

제1주제 : 팔공산 동화사의 가풍 및 종지
김상현 교수(동국대학교)

제2주제 : 팔공산 동화사의 역사 및 문화
정희돈 교수(영남대학교)

제3주제 : 팔공산 동화사의 인물 및 사상
홍 선 스님(중앙승가대학교)

제4주제 : 팔공산 동화사의 풍수 및 가람의 특징
성동환 교수(경산대학교)

제3부 : 종합토론 사회 :김성규 교수(영남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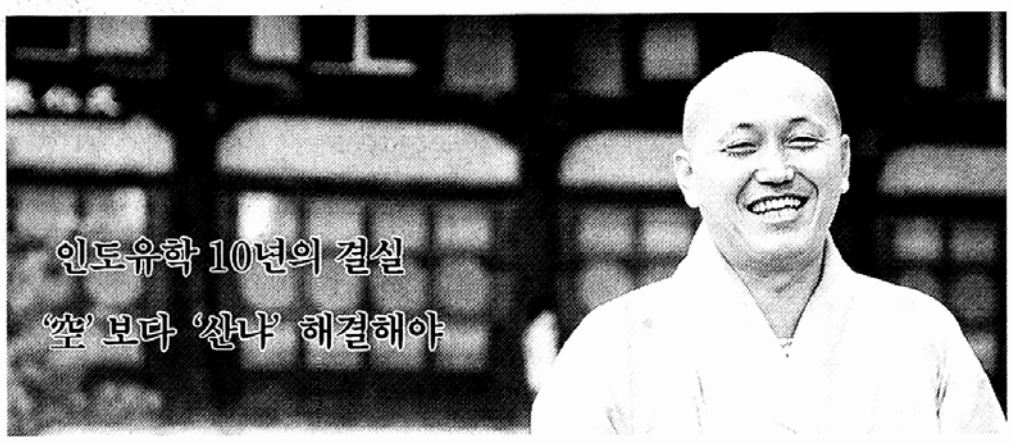
○지정토론 해월 스님(동화사 승가대학 강주) 진기 스님(동화사 한주)
성호경 교수(서강대학교) 최영식 교수(영남이공대학)
조현춘 교수(경북대학교)
○자유토론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桐華寺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2 • 法輪佛子敎授會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 75번지 경산대학교 자연과학부 전자물리학전공(장호경) 전화 (053)819-1450 팩스 (053)819-1271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MBC대구문화방송, TBC대구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 협찬 : 종정다례원, 선다회

금강경 핵심은 '인식 뛰어넘기'

각묵 스님 '금강경 역해'



출가 이후 송광사, 칠불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던 한 수좌가 돌연 팔리 삼장을 우리말로 역해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인도로 떠난다. 각묵 스님이 바로 그 주인공.

"87년 여름 쌍계사 칠불암 운상선원에서 반 철 지나면서 외국에 나가야겠다는 망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망상이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군요. 해제하고 도반인 함현 스님을 만났는데 '팔리경전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느냐. 선방에서 정진도 했으니 자네가 그 일을 하게'라는 말이 계기가 되었지요."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불교가 태동할 무렵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며, 수행의 주춧돌이라고 판단한 스님은 인도로 향했다. 그리고 인도유학 10년의 결실이 바로 〈금강경 역해〉(불광)다.

각묵 스님이 이 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금강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상(相)의 원어가 니밋따(nimitta · 모양)가 아니라 산냐(saññā · 인식)임을 알면서부터다. 산냐가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스님의 궁금증을 더했다.

"〈금강경〉의 말씀을 공(空)이라는 거창한 명제로 설명하는 대승불교의 관점은 너무나 이데올로기적 해석입니다. 〈금강경〉은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산냐를 극복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경입니다. 공관의 지혜를 설하기에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산냐를 뛰어넘는 참 지혜를 설하기에 반야바라밀인 것입니다."

스님은, 불교가 불교이고 부처님이 부처님인 것은 바로 이 '산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지금까지 수십 종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구마라즙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다 보니 〈금강경〉의 말씀이 구마라즙의 안목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과 산스크리트 술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토대로 출간된 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스크리트 원문, 구마라즙 원문, 현장역본을 대역하고 상세한 주해로 편집한 〈금강경 역해〉의 가치가 예사로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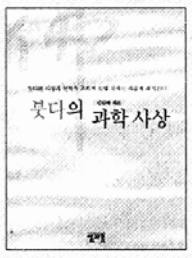
전체 경의 분절은 예로부터 통용되어 온, 양나라 소명 태자가 나누었다고 전해오는 32분절의 형태로 유지하면서 역경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구마라집 역본과 중국역경사의 자존심이라 할 현장 역본을 산스크리트 원전과 비교해가면서 상세하게 대역해 놓아 원전이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해되었으며, 원전을 무시하고 한문본으로만 읽을 때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금강경〉을 통해서 인생과 삼라만상의 실상을 밝히면서 '산냐를 극복하라'고 설하신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깨달음은 생생한 자연법칙

'붓다의 과학사상' 임원택 지음



"여러 사상과 종교가 갖는 핵심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찰과 탐구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리고 미혹하게 단정된 어떤 절대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 원리인 '자연법칙'이라는 주장을 담은 〈붓다의 과학사상〉(삶과 꿈)이 나왔다.

지은이 임원택 씨는 자연과 우주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존재와 인간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 '사실의 길'과 '미혹의 길'이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과학이 탐구하는 자연법칙이란 게 지은이의 논지다. 사실의 길은 자연의 창조 원리에 따르는 창조(생성, 생명)의 길이며, 미혹의 길은 자연의 파괴 원리에 따르는 파괴(소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책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초자연적이라는 환상적 깨달음이 아니라 과학에서처럼 과학적 사고 과정의 이성적 분별심과 과학적 탐구심에서 자연과 인간을 관찰한 데서 나온 자연법칙임을 고대 인도 사회의 사상과 종교, 부처님의 생애, 초기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탐구한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20세기 가장 영적인 책 한권

'라마 크리슈나' 정창영 옮김



"그의 일생은 종교적 가르침의 실천 그 자체였다." 마하트마 간디는 근대 인도의 영적 스승으로 평가받고 있는 라마크리슈나(1836~1886)를 이렇게 평했다.

신간 〈라마크리슈나〉(정창영 옮김, 한문화)는 라마크리슈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어록이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신앙과 교리의 장벽을 넘어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그가 자주 강조했던 가르침은 사상과 종교의 조화다. "모든 교리는 수많은 길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길도 결코 신 그 자체가 아니다. 본질은 하나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걷게 하라." 라마크리슈나는 종교 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또한 '여인'과 '황금'에 대한 버림의 정신과 신을 향한 순수하고 진지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했다. 이로써 집착으로 고통 받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의식의 진화를 위해 힘썼다. 라마크리슈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상을 억지로 주입하지 않는다. 사람마다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근대 인도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인간의 도리로 본 원효

'원효사상' 강정중 지음



원효라는 이름을 적을 때 학자들은 '위대한'이란 형용사를 자주 쓴다. 그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원효사상〉(불교춘추사)을 내놓은 강정중 씨는 '도리에 따른 사람'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원효 스님이 수많은 주석서를 남겨놓았지만 말년에 실천행으로 중생구제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원효 스님 자신 구제였다는 관점에서 본다는 우리는 원효라는 한 인간의 진실한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대승기신론 원효소'와 '금강삼매경론'을 우리말과 일어로 번역한 후에 집필한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원효사상의 근본이념을 논한 '원효의 삶에의 보상에 관한 서설' 등이 수록돼 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삼묵스님에 관한 27가지 이야기

'돈에도 암놈이 있고…'



산문에 들어와 드러나지 않게 수행과 중생교화를 하다 입적한 한 스님의 법문과 선문답 그리고 일대기를 담은 〈돈에도 암놈이 있고 숫놈이 있다〉(예지인)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삼묵(1913~1999) 스님. 스님은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남기로 홀로 월남하여 출가해 통도사, 김용사, 선암사, 범어사 등 제방선방에서 정진하고 만년에는 부산과 경북일대에서 남모르게 중생교화에 남다른 원력을 펼쳤다고 한다.

이 책은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불자들이 혼자서 알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하는 바람에서 하나하나 모아 엮은 글들이다.

부산 거사림회 법회의 법문 '불교와 인생' '도성(부산 태종사 조실) 스님이 본 삼묵 스님' 등 27편이 실려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예리한 직관으로 형이상학적 문제를 포착, 독자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 그를 흔히 '20세기 창조자' '환상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라 부른다. 이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적 상징의 하나가 된 그의 대표작들에는 불교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 그가 작품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내 안의 여러 모습 가운데 진짜는 누구인가'라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다. 이러한 그의 의문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와 윤회, 무아, 열반의 의미에서 풀어내고 있다.

수많은 불교서적을 탐독하며 오랜 동안 불교를 공부한 그는 〈불교 강의〉를 직접 썼을 뿐 아니라, 말년에 자신이 평생



세계는 거대한 환상
작가의 깨달음 번뜩
부처 정신세계 천착

집착한 불교의 일곱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불교는 나에게 있어 구원의 길이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98년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첫 번째 권으로 출간된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는 보르헤스가 불교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우파니샤드 철학을 공부했다. 그후 밖으로 드러난 형상의 세계는 거대한 환영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겉만 묘사하는 사실주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적 사실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전설상의 부처님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보르헤스는 부처님 개인 생애의 기록보다는 그의 정신세계와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값 5천5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3	보면 사라진다	김 열 권	정신세계사
4	신비의 티베트 명상법	주 민 황	숨
5	불교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6	거울	원 성	이 레
7	붓다는 없다	베 철 러	이론과 실천
8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함미디어
9	아, 일타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10	붓다의 대중견성 운동	김 재 영	도피안사

도서 안내: (02)737-0695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www.yosiamun.com

禪文化
10월 2001년 15호
선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교양지
발굴 · 공죽사에서 거조암까지
신라무상, 중국 5백나한의 청인에 올랐다 최석환
8세기 초기 중국선종을 주도, 김화상으로 알려진 무상선사가 본지에 의해 중국의 5백나한으로 조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천의 공죽사와 나한사를 비롯, 중국전역에 살아있는 나한의 화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무상의 자취를 발굴 했다.
한 · 중 문화의 교차로 ①
절강성에서 구법한 한국승과 그 유적 포지성
구산선문의 원류를 찾아 ① · 공공산 보화사
한국불교의 조종(祖宗), 보화사 월암
선과 차
중국 선차의 원류를 찾아서 ⑫ · 공공산 보화사
말없는 가운데 선차 꽃핀 땅, 공공산 보화사 최석환
차가 있는 삶 · 기타리스트 이병우
현(絃)의 울림 속에 차(茶)의 향기가 있다 박지정
다시 듣는 禪과 茶
한국차의 진면목[茶禪一味] 응송 박영희
기획특집 한국선불교의 오늘
동아시아 선(禪)의 중심은 한국이다 석천
선수행의 현장을 가다 방인철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불교의 바람 송평인
선어록강좌 확산이 가져올 한국선불교의 이해 김혜정
선문화 테마기획 - 선의 향기를 찾아서
하북성 조현시의 백림선사는 꺽다거룰 천하사람들에게 퍼트린 조주종심선사가 주석한 곳으로, 이곳에 한 · 중 우호기념 조주선사차비석을 건립함은 끊어져버린 한 · 중 산맥의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다. 불교춘추사는 조주선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 · 중 공동으로 선차비석 제막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일시: 2001년 10월 18일~10월 23일까지 ▸ 신청마감: 10월 10일까지
▸ 조주선사 차시비건립 행사일정
10시: 비석건립 제막식 11시: 한 · 중 선차 다도표현 12~2시: 만찬 2~5시: 학술대회 5~6시: 자유토론
▸ 비고: 신라인 혜철선사가 조성한 석경 운거사를 참배합니다.
▸ 조주선사의 선사상 재조명 ▸ 참가비: 90만원
정기구독안내
1년(12회) 42,000원
정기구독은 은행온라인이나 지로번호로 구독료를 입금하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구독문의: 733-8076
E-mail:sildara@hanmail.net
월간 선문화사 · 불교춘추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B/D 403호 TEL:(02)733-8076, 8078 FAX:(02)723-7461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사주명리) (오행술) (한계) (극복)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
(활인전문천역자용 신시)
★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剿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改訂增補版
출생년월일시를 묻지않고도 옛시간이나 전화에온 시간이나 가서 만난사람만 보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알고 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관한 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적시(摘示)해 놓아, 미리 그 정황(情況)을 지적하므로써 래인(來人)의 안색(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형이상학인 [形而上學的] 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악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될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료가 수조로울지 더뎌질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행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天通


아래 책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용건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형이상법 (귀신점법 · 산소탈 · 빌미부점 · 일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 또는 법력(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신령 · 신시(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농단(弄斷)되지 않도록 스님 · 음양오행가 · 신명제자 · 의사 등 활인전문천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삼빌딩 401호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책값이 타(他) 역서(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하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들에 대한 상담원가 이래 지역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편리한 곳으로 참석하시어 활인전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전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공록자 침학박사 曉 史 도서출판 卜 間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매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영산재 유럽나들이 '갈채'

법현 스님 스웨덴·독일 등 순회
11일 제주서 선무 '탐라의 빛' 공연

석가모니부처님이 인도의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음악(범패)과 무용(작법), 미술(장엄)의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공연이 해외 무대에서 연이어 열린다.

동국대 교수이자 영산재 이수자인 법현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스님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영산재를 선보였으며, 올해에도 다섯차례의 해외공연을 통해 영산재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스님은 지난 7월 2일 오스트리아의 라디오 오스트리아 인터내셔널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7월 6일~8일에는 벨기에 쥬베젬 국제 민속 축제에서, 7월 23일~27일에는 스웨덴 라트빅 국제 민속 축제에서 '한국의 불교음악과 불교무용'을 주제로 잇달아 공연을 가졌다. 또 7월 28일에는 일본 동경국립극장에서 초청 공연을 가졌으며, 9월 6일에는 독일 뒤셀도르프시 쿤스트 팔라스트 박물관의 '세계의 제의'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우리 영산재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이 행사에는 미국, 티벳, 스리랑카, 일본, 페루 등 세계 30개국 68개 제단을 만들어 각국의 다양한 제의 형식을 선보였는데, 이 행사장에 우리나라 불교 영산재의 불단을 그대로 재현해 꾸미고, 또 유일하게 현장에서 공연을 펼쳐 갈채를 받았다. 이 영산재 불단은 2002년 1월 6일까지 쿤스트 팔라스트 박물관에서 전시된다.

독일 언론은 영산재 가운데 나비춤과 바라춤 등으로 꾸며진 법현스님의 공연을 보고 "동양의 나비가 독일인을 놀라게 했다"고 극찬했고, 5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영산재 공연과 영산재 불단 전시장을 관람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번 독일 공연의 성공으로 현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의 박물관들과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스님은 내년 1월경 대만 불광사 초청 불교음악 공연과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 초청 공연, 그리고 내년 7월경 이탈리아 등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법현스님은 "국내 공연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 세계에 한국의 미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술적 차원, 포교적 차원에서 무대화 작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현스님은 우리의 영산재를 세계로 알리는 작업 외에도 제주의 민속과 불교 무용을 접맥한 선무 '탐라의 빛'을 11일 제주 민속타운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 공연은 제주시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에 걸맞는 우리 문화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스님에게 의뢰, 창작한 것이다. 첫 공연 후 6개월간 상설 공연에 들어간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a.com



◇지난 9월 6일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팔라스트박물관 공연 장면. 독일 언론은 나비춤과 바라춤으로 꾸며진 영산재 공연을 극찬했다.



◇한봉석 作 '고집멸도'.

불교조각의 미래본다

문화재조각회 작품전
10~16일 공평아트센터

제7회 한국전통문화재조각회 조각전이 10일~16일 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전통 조각의 맥을 오늘에 잇는 전통 불상 조각과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구상계열의 불상 조각이 다수 선보인다.

'고집멸도'를 주제로 석굴에 암각하던 불상조각 기법을 통나무에 도입해 성불의 과정을 표현한 한봉석씨의 작품이나, 두손으로 지구를 받들고 있는 형상위에 새들이 앉아 노래하는 송근영씨의 작품 '동체대비', 솟대와 목 없는 불상으로 표현한 노정용씨의 '안내자' 등 기존 불상조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은자 기자

비엔날레 2題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전통 공예로 보는 자연숨결

200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5일~21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공예비엔날레는 '자연의 숨결'을 주제로 우리나라 작가를 비롯한 세계적인 작가 100여명을 초청하는 국제초대작가전을 비롯해 공예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산업공예전, 한국공예의 전통과 혼을 오늘에 이어가기 위한 전통공예전 등을 마련한다. 또한 '공예속의 자연성'을 주제로 국내공예사가, 이론가, 비평가 등이 참여하는 학술심포지움, 문화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주 세계서예비엔날레

문자예술의 아름다움 감상

2001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6일~11월 5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을 비롯한 전주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선(線)을 넘어 합(合)으로'를 주제로 세계 20개국 문자예술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접할 수 있는 자리다. 본 전시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20개국의 작가 76명이 금자의 모양이 지닌 조형의 미학을 보여준다. 특별전으로 세계 각국의 문자와 문양을 만날 수 있는 '국제문자각전'과 고대 각국 문자의 사진자료와 이를 모티브로 국내 작가들이 만든 서예작품이 전시되는 '세계문자서예전'이 마련된다. 이은자 기자

"능산리 절터는 고분 지키는 절"

부여박물관 발굴보고서

최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부여 능산리 절터(434호)의 발굴보고서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나왔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 성과를 담은 보고서 〈능사(陵寺)〉는 '능을 지키는 절'이란 제목에서부터 일부 이견이 제기됐던 이 유적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비시대(538~660년) 집단 왕릉묘역인 능산리 절터와 부여 나성 사이를 흐르는 계곡에 조성된 능산리 유적을 능산리 고분군을 위한 사찰로 보고 있다.

즉 중문과 목탑 금당, 강당을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한 이른바 1탑1금당식의 전형적인 백제 가람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 출토된 불상의 광배와 흙으로 빚은 불상의 머리, 사리감 등 불교 유물이 많이 확인되고 있음도 이곳이 절터라는 유력한 증거다.

동과 서, 남쪽에 회랑이 둘러져 있는 점은 그 동안의 백제 사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람 배치다. 특히 남쪽 회랑은 기단이 동·서 회랑과 만나는 지점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바깥쪽 배수로까지 이어진다. 이 때문에 이 유적지가 백제 왕실의 신궁터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절터가 물과 높이 많은 계곡이라는 지리적 취약성을 이겨내기 위해 건축물 자체 구조뿐 아니라 배수로 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썼음을 주목하고 있다. 배수로는 동서 양 바깥쪽을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하를 관통하고 있는 배수로도 확인했다.

1993년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 향로는 구리와 주석을 85대 15의 비율로 합금했으며 대략 1천100도에서 녹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동대향로의 상징성과 각 도상의 성격, 제작 배경이 되는 사상의 문제 등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연극 '바리공주'

12~15일 세종문화회관

서사무가의 대표작 〈바리공주 설화〉가 연극으로 꾸며진다. 바리공주 설화는 '바리데기', '오구풀이', '칠공주', '무조전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공통된 줄거리는 버림받은 일곱째 공주 바리가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위해 저승을 찾아가 약을 구해 온다는 내용.

연극으로 꾸며지는 '바리공주'는 작가 우봉규의 원작을 극단 현빈(대표 김일위)이 12일~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02) 762-8846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새벽에 잠이 깨어 뒷산에 올랐다. 흰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배경으로 북한산 연봉이 늠름하게 뻗어 내린 광경을 보는 것은 한으로 장관이었다.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만든 세 봉우리,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눈앞에 펼쳐진 북한산 연봉의 비경을 감상하다가 문득 어젯밤 읽은 이원섭 시인의 시가 생각났다. 이 노시인은 당시(唐詩), 노자, 장자, 논어, 선시를 비롯하여 불교대전 등 많은 고전을 번역하였는데, 최근 40여 년 만에 새 시집 〈내가 뱉은 가래침〉을 펴냈다. 제목이 재미있는데, 〈머리말〉에 시집명을 그렇게 지은 심사가 잘 드러나 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무슨 시집이냐고 나무라는 이가 있다면, 이것들은 나의 가래침이라고 변호하고 싶다. 사십 년쯤이나 시를 외면하고 살았는데도, 그 동안에도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나 생각은 마음 속에 앙금으로 남아 침전되어 있다가, 오늘 그 불순물들이 가래로 응고되어 치고 올라와 마침내 폭구멍에 엉겨붙기에 이르렀으니, 나로서야 이 역겹고 메스꺼운 것을 입 밖으로 뱉어내는 것 외에 무슨 방도가 있었겠는가."

이원섭 '내가 뱉은…' (1)

'자신 돌아보라' 문수봉의 대답 잠깨우는 새벽

그는 사십 년 만에 뱉어 놓은 시구들을 가래침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사리처럼 단단하고 영롱한 시들이다. 그 중에서 '집을 비워 놓고는'이라는 시가 영 뇌리에서 가시질 않아 새벽부터 나섭니다.

꿈에 인수봉을 찾았더니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했다.
또 백운대를 찾았더니
조금 전에 나갔다 했다.
내친김에 만경대에 올라보았으나
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문수봉을 찾아가 털어놓았다.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집을 비워 놓고는.

그러자 문수봉이 정색하고 물었다.
그럼 선생은 지금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을 비우고 있습니까.
놀라서 깨어보니 새벽 네시였다.

가출한 봉우리들을 탓할 게 아니라 가출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문수봉의 대답은 장군죽비처럼 우리들의 어깨를 내리친다. 과연 새벽 네시에 시인의 잠을 깨울만하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마음에 걸려 나도 새벽에 눈을 뜨고 산에 올라 북한산과 마주선 것인가? 저 앞에 우뚝 선 문수봉이 내게도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더니 이내 입을 다문다. 허깨비에 그만 끌려 다니고 이제 자신의 주인노릇 좀 제대로 해보라는 것인가.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8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 32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8,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상월선사 '金世龜'

상월 선사는 조선조 숙종 13년(1687)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법명은 새봉(璽篈), 법자는 혼원(混元), 법호는 상월(霜月) 속성은 손(孫) 씨다.

11세 되던 해에 조계산 선암사로 들어가 극준 장로에게 삭발 염의하여 출가하였다. 15세에 세진당문신(洗塵堂文信)에게 구족계를 받았고, 18세에 월저도안 선사의 적자(嫡子)인 설암 선사에게 수참 용맹정진하였다.

선사께서 주로 용맹정진하며 수참했던 곳은 향로당(香爐堂)이였으며, 26세 되던 해 가을 달빛 아래서 학(鶴)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서 확철대오하였다.

금세구(金世龜)

身遊一片仙巖寺(신유일편선암사)
夢想千秋月鶴亭(몽상천추월학정)
霜後幾看新竹綠(상후기간신죽록)
開花爛慢隣僧榻(개화난만린승탑)
庾影婆娑送客亭(유영파사송객정)
雨後微凉除熱惱(우후미양제열뇌)
也宜端坐索禪經(야의단좌삭선경)

부처님의 밝은 법향 해동에 널리 펴졌고,
가을의 서리 월하(月下)의 뜰에 내렸다.
누구(중생)를 향한 마음 고래로 굳건한데,
나의 마음 춘하추동 푸르다.
만개한 촛불 법상에 빛나고,
그림자처럼 객이 떠난 깨끗한 정자이런가,
미동도 없이 단좌(端坐)하니 선경(禪經)이 확연하네.

선사의 깨침은 자연대도(自然大道)이다. 자연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 티끌 한점도 없는 깨끗함 그대로다.

물은 흘러서 바다로 돌아가고

달은 져도 하늘을 떠나지 않도다

雪中惟對古松青(설중유대고송청)
嗟吾老去難成卷(차오노거난성권)
愛爾年來易閱經(애이년래역열경)
綠苑尼山雖異路(록원니산수이로)
天然大道共門庭(천연대도공문정)

이 내몸 일편단심 선암사에 머물고,
꿈 속같이 끝없는 세월 달 아래에 학처럼 깃들어 있네.
서리가 내린 후 바라보니 댓잎은 더욱 푸르고,
눈이 온 후에 생각하니 소나무 더욱 청청하다.
슬프다 늙어짐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부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네.
녹야원(鹿野苑)에 임하니,
만유(萬有 : 우주)의 대도를 깨달았네.

축계(竺桂)

天西竺桂海東馨(천서축계해동형)
況又秋霜月下庭(황우추상월하정)
誰信古今根自固(수신고금근자고)
我知冬夏葉常青(아지동하엽상청)

선사는 한밤중에 반드시 북두(北斗)에 기도하면서 중생구제에 힘썼다. 또한 명료한 강론 군더더기 없는 선설(禪說), 마음으로서의 실천 지혜로서 입증 강명직해(講明直解)로 가르침의 문(법문)을 삼았다.

선사는 가르침에 있어서 초심자라도 깨달음의 길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으며, 수행과 법력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계율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도하였다.

더욱이 옛 조사님들의 주석과 해설에 얽매이는 것을 특히 걱정하며 반드시 수학하는 이로 하여금 문자에 국집(局執)함이 없이 문자가 가리키는 참뜻을 가려내어 가르침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알도록 세심하게 가르쳤다. 선사의 가르침은 강물이 흐르는 유수선(流水禪)과 같다.

영조 24년(1766) 10월에 선사는 "물은 흘러서 바다로 돌아가고(水流元歸海), 달은 져도 하늘을 떠나지 않도다(月落不離天)"는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가까이서 뵌 큰스님

금봉스님

태고종 승정

"불사든 수행이든 기초가 중요"

예로부터 바위 사이로 검은빛과 푸른빛이 동시에 흘러나온다 하여 감색바위산으로 불린 파주 감악산(紺岳山)은 관악 송악 북악 운악산 등과 더불어 경기 오악(五岳)에 속한다. 오악산의 중심에 위치한 감악산에도 어느덧 가을이 깊어감을 알리듯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범륜사를 오르는 산길 옆에 위치한 20여m에 달하는 운계폭포의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 내린다. 마치 물줄기에 참배하러 가는 이들의 속진을 씻기는듯 보기만 해도 마음이 청아해진다. 폭포 윗쪽으로 우뚝서 계신 백옥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스런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가파른 바위골짜기 사이로 경사높은 길이 나왔다. 절로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30년간 절 불사를 일군 금봉 스님의 땀 냄새가 느껴진다. 드디어 길의 끝자락에 오르니 양옆 계곡사이 아담한 평지위에 감악산 범륜사가 한 폭의 그림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자연석 돌을 다듬어 만든 법당과 비구니 강원 건물, 그리고 지장전, 백옥 관세음보살 입상, 통일 공원등 가람배치가 가지런하다. 사찰을 넉넉하게 둘러친 산에는 키큰 낙엽송과 잣나무들로 빽빽하다. 모두 20여만 주라 하는데 30여년전 스님이 직접 심은 나무들이다.

나무 20만그루 손수 심어

법륜사, 백련사 등 큰 절의 주지소임을 박차버리고 30년 전 맨몸으로 길도 나있지 않는 감악산에 들어간 금봉스님은 이름조차 희미한 폐사지에 천막을 치고 더위와 추위를 잊고 1년 365일을 울력만 했다. 아침예불 시간부터 저녁예불 시간까지 바윗돌을 지게로 지어 나르며 석축을 쌓았다. 나무를 켜 다듬어 옮기고, 흙을 개어 벽을 바르고 서까래를 올리고..., 사찰 곳곳에 노스님의 손길과 정성이 배어 있다. 큰 자연석 바위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축대와 정비된 계곡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대웅전과 지장전등이 소박하면서도 주변 경관과 하나처럼 잘 어울려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곳에 있는 돌이 그대로 법당의 주춧돌이 되고 산에서 자란 나무가 그대로 대들보와 서까래로 쓰였기 때문이 아닐까.

다리를 건너가자 법당 앞 통일공원에서 작업복을 입은 금봉 노스님이 직접 돌계단을 만들고 계셨다. 이마에 송글 송글 땀방울이 맺힌 스님은 돌을 들어서 조심스럽게 옮겨놓으며 제자리를 찾도록 했다. 세수 80을 넘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꼼꼼하다는 스님의 명성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오히려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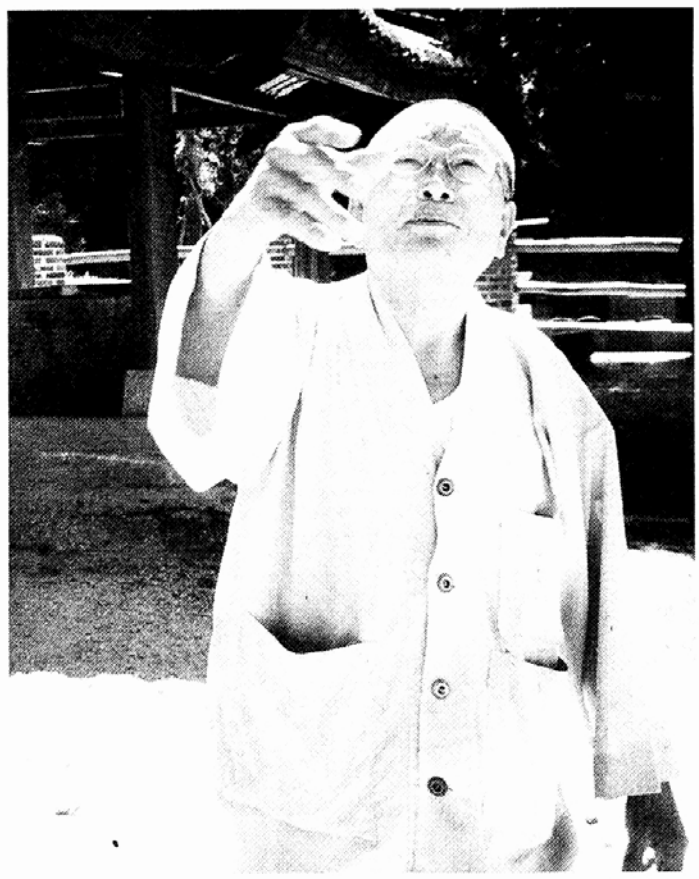
"이 돌계단 쌓는 일은 하찮게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돼요. 이렇게 잘 제자리를 찾게 해줘야 세월이 흘러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무너지지 않지요. 아무리 주된 조형물이 잘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 부실하면 헛수고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좌복위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사든 수행이든 기초가 중요하고 초발심때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곁에 앉아 자연석으로 조성한 비석이 매우 독특하다고 여쭈니 스님은 "지난해 법당 앞 계곡을 정비하다 큰 바위가 나왔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한낱 바윗덩어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 하찮게 보이는 일도 정성 쏟다보면 생활속 수행돼요

것에도 쓰임새와 역할이 있어요. 산하의 산천초목 어느 것이던 다 쓸모가 있고 역할이 있게 마련이지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두 불성이 있는 만큼 하찮게 다루면 안됩니다. 그래 이 바위를 무엇에 쓸까, 무엇에 썼으면 좋겠느냐고 되물으며 한 반년간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글귀를 새긴 비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통일기원 9층 석탑을 세워 통일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오고가는 등산객들이 공원에서 쉬어 가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그 염원이 쌓이다 보면 언제간는 통일이 이뤄지지 않겠어요."

스님은 아침마다 절에서 상축을 하는데 어느 절이든 의무적으로 국태민안과 평화통일을 기원한다며 범륜사의 통일공원은 그 정신을 화현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30년간 손수 울력수행을 하며 범륜사를 창건한 금봉 스님은 생활속에서 검소함을 실천하는 '일하는 큰스님'으로 존경받고있다.

"평생 동안 일수행과 후세교육을 강조하시며 직접 실천에 옮기셨지요. 지치지는 않으셨어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노스님은 "30년간 일을 해 범륜사를 창건한 것은 다 후학들을 위해서 입니다. 시줏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를 몇 그루씩 사서 심었어요. 나무를 잘 길러 후학들을 위한 불사용으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나무가 제법 자라 서까래용 목재로 사용할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니 일이 곧 수행이 됐어요. 일하면서 힘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젊은 수행자들이 이곳에 와서 열심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니 즐거움이 컸고 이런 마음으로 살다보니 이 나이가 되도록 몸은 예전에 비해 좀 불편하지만 아픈 곳 하나 없는 것도 큰 공덕 이예요."

스님은 범륜사를 일으킨 것으로 지중한 불은의 공덕을 일부나마 갚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웃으셨다. 그러면서 스님은 누구나 지극한 신심을 갖고 원력을 세우면 모두 이뤄진다면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며 일념으로 정진하면 반드시 성취가 따른다고 체험담을 들려주셨다.

"처음 불사를 할 때 혼자서 일하니 주춧돌을 골라 자리로 옮기는데 3일, 기둥하나 세우는데 일주일, 대들보 하나 세우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공부에 소홀 하는 것 같고, 공부에 치중하면 일이 안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했지요. 답은 공부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를 안다면 일과 공부는 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부는 마음의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하면서도 마음의 본성을 찾는 일을 쉬지말자 했지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을 세우고 온 몸과 마음을 일속에 쏟아 부었

탈 종 공 고

불광사	법광	칠성암	도학
반야사	지성	금강사	다솔
보현암	현우	선각사	무상
정토사	택봉	토암사	토암
칠보사	도안	원각사	청암
천진암	응진	보각사	성심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2001. 10. 10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 (W.F.B) 한국본부
㈜ 코리아 붓다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 E L : 02) 864-8834~6 / FAX : 02) 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 .co.kr

금봉 스님은?



30년 수레끌며 범륜사 불사

통일원력 '평화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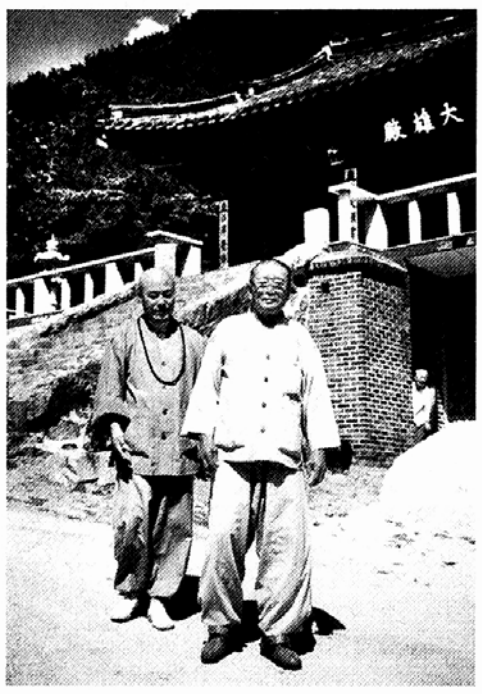
태고종 원로인 금봉스님은 1920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나 1930년 서울 북한산 진관사에서 월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스님은 1938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동국강원 대교과를 수료했으며 1954년 서울 법륜사 주지, 1960년 서울 백련사 주지, 1965년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하고 1998년 태고종 승정에 추대됐다.

스님은 은사인 서명당 월현스님이 92세까지 진관사에서 평생 울력불사를 하며 공부를 시켜준 공덕을 갚기 위해 1971년부터 파주 감악산 폐사지에 들어가 현재의 범륜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30년전부터 범륜사에 주석하며 한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고 손수 수레를 끌면서 불사를 해왔다. 그래서 주위의 스님과 신도들은 스님을 이르러 '일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 평생 일군처럼 사시는 큰스님'으로 존경하고 있다.

사찰 창건 후 스님은 비구니교육에 뜻을 두고 한국불교의 대표적 학승이었던 태고종 전 종정 보성스님과 전 태고종 총무원장 운제스님을 모시고 태고종 비구니강원을 설립, 선암사로 강원을 옮기기 전까지 직접 운영했었다. 범륜사에서 배출된 비구니 스님만도 300여명에 이른다.

또 스님은 올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경내 200여평에 평화통일 소공원을 조성해 감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남북통일에의 원력을 일깨워주고 있다.



◇금봉 스님이 시자스님과 함께 범륜사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어요. 그러다보니 불만이나 불안감, 힘들다는 망상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일하는 자체가 내 생활이 되었고 성취감도 컸어요."

스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육조 혜능스님이 여덟 달 동안 찧은 방아가 단 순히 일만 한 것이 아닌 방아와 찧는 멍어리를 통해 자신과 우주가 하나라는 가르침을 일깨웠다는 내용이 생각났다.

스님은 말을 하시는 중에도 돌을 옮기고 흙을 치우는 등 일에 매진했다. 그래서 경내를 한바퀴 돌아본 뒤 스님의 점심공양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법을 청했다.

"마음달이 홀로 뚜렷하니 빛이 만 가지 모습을 삼켰네. 빛은 경계를 비춤이 아니요 경계 또한 있음이 아니니 빛과 경계 모두 사라지면 다시 이 물건 무엇인가."

'일하는 큰스님'으로 통해

스님이 문득 반산 보적선사의 선시를 들려주신다.

"중생들은 꼭 절에 가야 수행하고, 조용한 곳에 있어야 공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처처가 법당이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모든게 이뤄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생활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고 생활이 곧 수행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바로 보도록' 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생각해보니 막막해요. 중생들이 오는 길도 가는 길도 모르니 눈물이 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본성을 찾아야 합니다. 본래 주인공인 마음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 헛것이예요."

스님은 승속을 불문하고 참 불자는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따르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셨다.

"부처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불자들이 〈반야심경〉은 누구나 외우잖아요. 〈반야심경〉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집착하지 않고, 편협되지 않으며 생각하고 실천하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는 공(空) 즉 자유를 찾게 해준단 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입으로만 부처님 법을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인과의 진리 모르고 눈앞 이익 얽매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스님은 유점사 강원에서 당시 월정사 한암스님, 개운사 한영스님과 함께 조선 3대 강백이었던 일우스님께 배운 공부법을 소개했다.

"일우스님은 참선을 집중적으로 시키지 않고 매일 조석 예불 후 30분씩만 참선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근기에 따라 자유롭게 정진하도록 하셨지요. 생활 속에서 화두를 잡지 못하면 부처님께 원을 세우고 법당으로 가 열심히 절을 하게 하셨지요. 관세음보살."

금봉 스님은 말끝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그 연유를 묻자 "30년간 불사를 해오면서 '관세음보살'을 염했어요. 이제는 관세음보살 염불이 입에 붙어서 꿈에서도 염송할 정도가 됐지요. 염불은 불교신행에 들어가는 기초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33가지 몸으로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요. 관세음보살님은 널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세상 사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것을 설법하시며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넓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권하고 계시지요. 아무런 형식도 필요하지 않고, 그저 입과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되니, 복잡한 교리체계를 떠나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니 만큼 근기가 낮은 현대인들에 적합한 방편이라 생각됩니다" 자상하게 설명해주신 스님은 결국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지극정성으로 정진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현대인들이 총명하기는 하지만 지혜가 없어 깨달음의 성취가 어렵다며 참선 염불 독경 등 수행을 자신의 근기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고 하신다.

감악산에 등산 오는 사람들과 자주 얘기를 나눈다는 스님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중 불교를 믿는다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천만명이라 하는데 사실상 불교의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절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긴데 간혹 절에 몇 년 다녔다는 불자들도 공부는 하지 않고 불고가 어렵다고만 해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머리가 좋은 사람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부비나야경〉에 나오는 바보 주리반특가 얘기 알지요. 부처님 제자 중 주리반특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분은 무엇을 가르쳐주어도 외우지 못했어요.

말끝마다 '관세음보살' 염송

대중들이 주리반특가는 수행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 이구동성으로 말했지요. 부처님은 주리반특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는 듯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바닥을 걸레로 밀며 '마음을 닦자' 한마디만 외워라. 주리반특가는 신이 나서 매일 이 구절을 입으로 외우면서 청소를 하였고 사문들의 신발까지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리반특가는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준 '마음을 닦으라'는 화두가 마음속에 있는 때(업)를 닦아 없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문들도 신발까지 닦아주는 주리반특가를 고맙게 여기게 되었지요. 주리반특가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 16나한 중 하나가 되었어요.

아무리 경전에 박식하더라도 이를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남의 양의 수나 세는, 평생 가난한 목동의 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인과를 모르고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일하러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 성큼 걸어가신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목초 스님

신령한 산으로 알려진 계룡산, 그 계룡산에 정말 괴짜 스님이 한 분 계셨다. 그 스님이 목초 스님이다. 스님은 '심우정사'라는 토굴에서 정진중이었다. 학인의 눈에는 그냥 땡초(?)처럼 보일 뿐이었는데 어른 스님들은 목초 스님만 오면 아주 각별히 대하셨다. 목초 스님은 쌀이 떨어지면 동학사 마루에 빈 쌀자루를 던져놓고 훌쩍 마을로 내려가 버린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쌀자루를 가득 채워놓는다. 해질 무렵 스님이 나타나 자루를 들고 올라가면 한 보름 동안은 뵐 수가 없다.

학인들 사이에선 그가 도인이라는 둥, 지금은 몰골이 저렇지만 예전엔 아주 눈 푸른 납자였다는 둥, 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둥, 저렇게 한 번 들어가면 무문관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장좌불와를 한다는 둥, 정말 말들이 많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초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날 우리들 중 몇은 호기심이 너무 많은 탓에 그 토굴에 가서 그가 도인인가 아닌지 알아보기로 했다. 토굴에 도착했을 땐 주변이 생각보다 너무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 놀랐다. 방문 앞에서 목초 스님을 부르자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며 햇살 때문에 눈살을 잔뜩 찌푸린 스님이 왜

계룡산서 만난 괴짜스님

'머리 불붙은듯' 수행 깨우쳐

왔느냐고 묻지도 않고 손을 휘휘 저었다. 가라는 뜻 같았다. 내가 혹시나 싶어 갖고온 라면 두 봉지를 꺼내 흔들자 스님의 입가에 언뜻 미소가 스치더니 들어오란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스님은 벽장에서 과자랑 사탕을 꺼내 먹으라고 우리 쪽으로 밀어놓고는 사탕을 오드득 오드득 깨물어 먹고 있었다. 라면을 먹다 벌떡 일어나더니 부처님을 홱 돌려놓고는 벽장 속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말없이 잡수셨다. 아니, 곳곳이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건만 방안에 부처님을 돌려놓고 술마신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우리 생각을 읽었다는 듯 "휴식중!" 이란다. 저 분아 마시는 술은 불법의 진리로 빚은 법주인가 한낱 곡차인가를 놓고 우리들은 오랫동안 옥신각신 했다. 법주냐, 곡차냐에 따라 그가 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 나는 것처럼.

그날 계단 앞에서 벌겋게 취한 스님이 "여구두연(如求頭燃)! 여구두연!" 이라고 소리치셨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오직 불을 꺼야한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그렇게 정진하라는 뜻이리라. 궁금증으로 무슨 대답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이들에게 우리는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가 도인이냐 아니냐는 이미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알려준 것으로 족했다.

봄이 될 때까지 스님은 내려오지 않았다. 강사스님께서 걱정이 되어 토굴로 학인을 보냈다. 그 학인의 말이 신발은 있는데 대답이 없어 그냥 내려왔다고 했다. 그 학인은 창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목초 스님은 면벽중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산수유가 뽀송뽀송 피어나던 봄날, 내방 앞에 쌀자루가 있었다. 원주스님에게 말하고 쌀을 담으러 자루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다. 편지였다.

'욱수좌, 지금 여구두연?' 뜨끔했다. 얼른 주머니에 넣고 산으로 올라갔다. 조용한 바위에 앉아 그 편지를 보고 또 봤다. 뜨거운 것이 불뚝 솟았다 가라앉았다 했다. 선방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피어올랐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목에서 목초 스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수처작주(隨處作主)!"하시는 게 아닌가. 난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어쩌면 저리도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실까. 지난 번 방자하게스리 스님이 수행을 잘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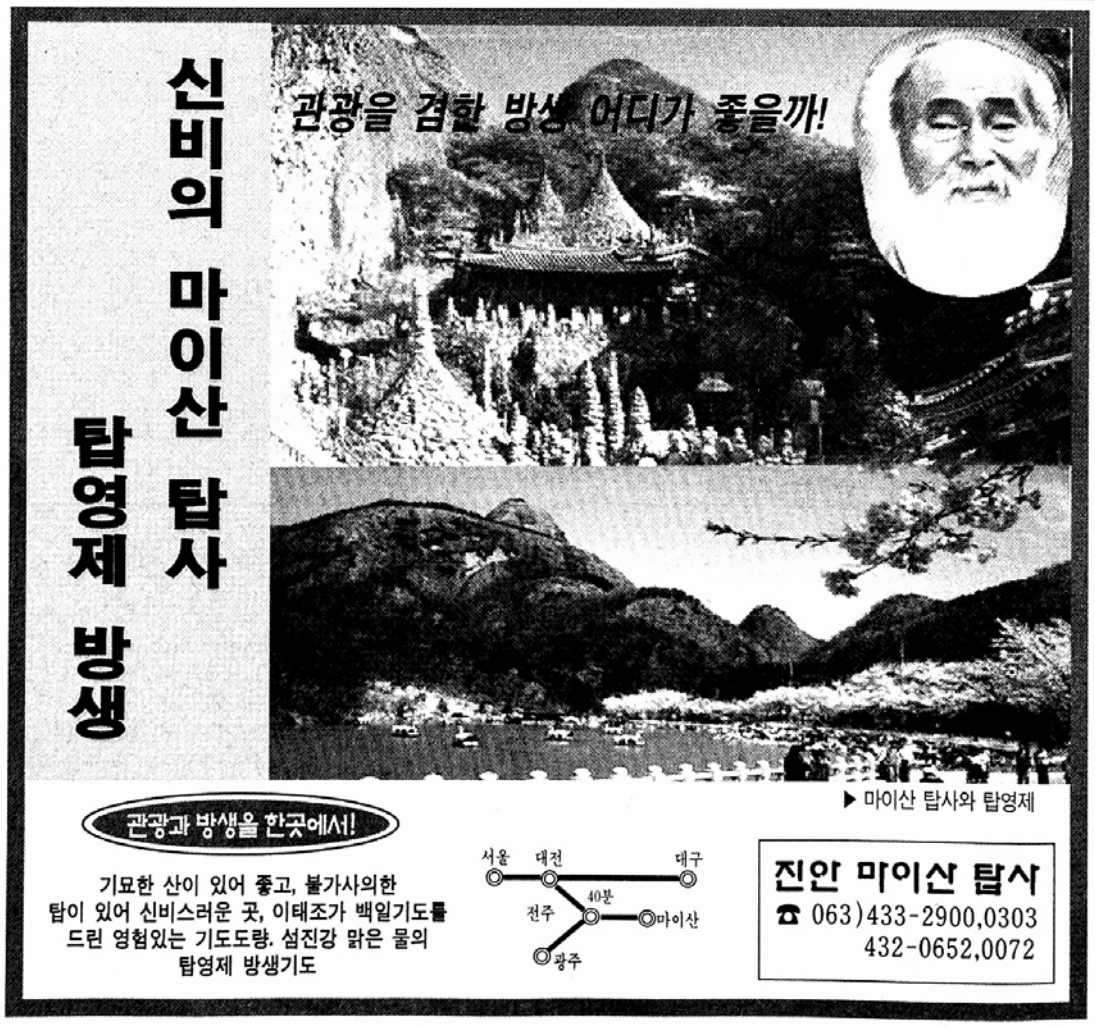
못하는지 저울질하러 나타난 어린 녀석들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해 하셨을까 생각하니 죄송했다. 절에 들어가니 내일은 휴강이라며 울력복과 모자, 장갑을 챙겨서 아침 6시까지 법당 앞으로 모이라고 한다. 목초 스님이, 지난 겨울 어떤 시주자가 백만 원을 보시했는데 그걸로 몽땅 묘목을 사셔서는 꼭 학인들 손으로 심으라고 당부하고 가셨다고 했다.

나무를 심어라?!

천지의 기운이 어우러져 만물을 만들어 내고 만물은 길러진 뒤에야 완성되며 길러지지 않으면 병들게 된다. 이 때문에 선지식이 헤아려 이루고 도와서 바로잡는 소임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내겐 소나무 20여 묘목이 할당되었다. 호미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 스님의 깊은 뜻을 가슴에 담아 심고 잘 가꾸리라 약속했다.

목초 스님은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도 내려오시지 않았다. 그 해 겨울, 바랑을 지고 구름처럼 떠나셨다고 하는데 그 후로 뵌 적이 없다. 그러나 계룡산 골짜기마다 자라고 있을 그 많은 나무들처럼 어디선가 '여구두연' 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반야사 주지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현대불교사회문화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Buddhism Leader Academy)
스피치 과정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고,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필요한 자신감을 갖추어 대중포교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설법과 강의,대중연설에 자신있는 화술이 필요한 스님과 포교사
◇ 교육기간 : 3개월 과정 총 13회 강의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
◇ 개강 및 강의일정 : 10월 24일 개강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 강의내용 : 불교스피치의 기본원리
(법문, 설법, 강의, 강연, 연설등)
불교스피치 방법론 / 유모어와 불교 스피치
파워스피치 방법론 / 스피치 원고 작성법
불교 및 타종교 유명 성직자의 스피치 사례분석
스피치 실습
◇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현재 접수중(2001년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 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무국
- 문의 : TEL : 02) 736-6940 FAX : 02) 720-7097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http://www.mbudsc.org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아카데미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몸안에 독소를 제거해주는 새로운 발건강법!!
일본大 핫트상품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면 누런 노폐물이 빠집니다.
▲ 만병의 근원인 몸속에 노폐물이 시트에 묻어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나 발바닥에 붙여 독소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 갈라진 발에 좋으며 딱딱한 발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콤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효과가 없을시 100%환불 보장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02]455-6944, 02]453-5851



◇용인노인요양원 공동작품 '한반도'.



◇마포경로원의 공동작품 '인형'.



◇용인노인요양원 노만기(75)씨의 '짚신'.



◇인천재가노인복지센터 공동작품 '팔각함'.



◇임산노인종합복지관 공동작품 '종이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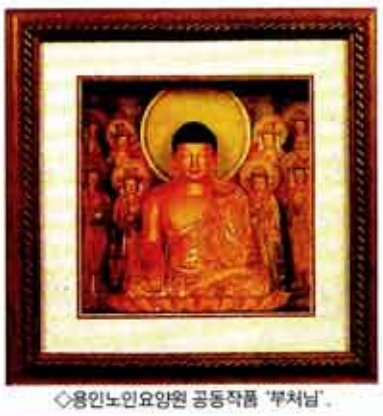
할머니 할아버지 솜씨 "아름다운 노을 보는듯"

연꽃마을 '2001 노인작품전' 1만여점 출품

6~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13~15일 안양 문화예술회관
19~20일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28~29일 일산 호수공원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공동작품 '요구르트병탑'.



◇용인노인요양원 공동작품 '부처님'.

평택노인요양원은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과 유대도 가질 수 있었다. 이 요양원은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수용시설인 터라, 그동안 이 시설을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런데 불편한 몸으로 야쿠르트 병에 양초를 붓고 한지에 일일이 풀을 바르며 열심히 작품을 만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본 지역주민, 특히 노인들이 돕기를 자처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반목의 골을 허물 수 있었다.

광주남구노인복지관 할아버지들이 만든 공예품에는 웃음이 묻어 있다. 할아버지들은 재료로 사용할 짚과 대나무를 인근 야산에서 직접 베었는데, 이 때 뭘리고 굵힌 상처가 공예품을 만드는 피곤함을 씻는 청량제 구실을 톡톡히 했다. 마치 '영광의 상처' 인양 서로에게 내보이며 자랑한 것이다. 이의호(67) 할아버지는 "작품을 만들기 힘들어도 재미나서 아픈 줄도 몰랐고,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대구동구의료복지센터의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한지공예 전문가가 되었다. 한지 자르기, 풀칠하기, 니스 칠하기 등의 제작 과정이 손에 익어 인근 상가에서 납품하라는 재안도 받았을 정도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대형작품인 호수공원 미니어처 제작 과정에 주엽공업고등학교 전기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노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평택시노인요양원의 할머니들이 황가리를 이용해 시계를 만들고 있다.



◇더위도 잊은채 목공예의 재미에 빠져있는 안양경로원의 할아버지들.

이 밖에도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에는 짚신, 삼태기, 대나무 원두막, 대나무 대금, 통지게 등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사라져 노인들이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 추억의 공예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문화 지킴이'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도 돋보인다. 또한 종이 꽃송이 3천개로 만든 대형 한반도 지도, 바둑알만한 색종이 2천5백장을 말아 만든 대형 태극기, 한지로 만든 사찰 모형, 신문지를 물에 적셔 말아 만든 석가탑 등 이색 작품들에서도 그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김민정 기획총괄팀장은 "노인들이 작은 일일지라도 생산 활동에 직접 참가해,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노인 복지"라며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의 폭을 넓힌 것은 이번 행사의 또 다른 성과"라고 말했다.

연꽃마을의 '2001 노인작품 전시회'는 6~10일 서울 잠실롯데월드를 시작으로 13~15일 안양 문화예술회관, 19~20일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28~29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순회 전시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전시회 연 각현스님



"어르신들의 무한한 잠재력 드러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의 이정표를 세우는 가장 능동적인 노인복지입니다."

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4개 도시에서 노인작품전시회를 마련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심어주기 위해 연꽃마을 식구들이 한 몸이 됐다"며 "창조적인 제2의 인생을 즐기는 노인상 정립이 이번 전시회의 기획 의도"라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연꽃마을은 지난 5개월 동안 노인들의 작품 제작을 도울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초빙하는 것은 물론 전시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쏟았다. 법인의 씀씀이를 줄여 8천여 만 원을 모았고, 경기도로부터 노인복지기금 2천여 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노인작품 상설 전시장으로 별관을 무료로 빌렸다. 총 소요 경비는 1억 6천여 만 원.

스님은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노인들의 숨은 기량과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계속 살려나가 '생산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님은 "3백여 연꽃마을 직원들과 8천여 자원봉사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번 전시회는 마련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처럼 보시의 공덕이 다음 전시회에도 계속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함초샐러드



서산의 연암산 천장암(경허 스님이 장좌불와하시고 그의 제자 수월스님이 출가한 곳)에서 비명소리가 새벽의 적막을 깼다.

큰스님 처소의 비명소리에 수월스님은 맨발로 뛰어갔다. 방안에서 큰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알았소. 알았다니까! 이 팔 좀 놓고 이야기하시오." 봄이 켜지더니, "밖에 수월이 와 있는가. 들어오게!" 방안에선, 경허 스님(1849~1912)이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주무르고 계셨다. "지금도 팔이 아프군. 자기 며느리가 죽어간다고 어서 살려 달라는 거야…. 아무튼 행장을 꾸리게."

수월 스님은 큰스님 뒤를 말없이 따랐다. 한참을 가다보니 온몸이 젖은 여인이 바닷가에 쓰러져 있었다. 바로 꿈에 나타난 보살의 며느리였다. 시집온 지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못 낳고, 자궁의 통증까지 심해지자 삶을 포기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경허 스님은 갯벌에 지천으로 있는 자주빛 풀을 한 아름 뜯어, 당신 입으로 잘게 씹어 즙을 만들어 그 여인의 입안으로 흘려 넣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여인의 손이 움직이면서 눈을 떴다.

이 자주빛 해초의 옛 이름은 '나문재', 지금은 '함초(鹹草)'로 부른다. 그 후 여인은 함초즙과 함초죽을 꾸준히 먹고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 고대하던 아이를 낳고 잘 살았다. 지금도 서산 바닷가의 할머니들은 함초를 가리켜 월경초라 부른다. 그만큼, 부인들의 건강에 탁월한 효험을 보였던 것이다.

함초는 서해안 갯벌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10월에 열매가 익는다. 오염된 바닷물 100톤을 정화하는데 함초 5g이면 족할만큼 정화능력이 탁월하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

혈액정화…부인병 효능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오이 1/2개, 토마토 150g, 상추 10장, 오렌지 1개, 함초 10g

요리법 ① 함초의 딱딱한 부분은 빼고 부드럽고 오돌오돌한 줄기만을 장만한다.(함초는 그 자체가 소금간이 되어 있다) ② 오렌지와 토마토, 상추, 오이를 먹기 좋게 썬다. ③ 큰 그릇에 함초를 섞고 오리엔탈 소스를 끼얹어 접시에 담아낸다.

재료 ①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숙변을 배출하며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한다. ② 각종 부종의 치료 및 만성 피로와 비만 해소 ③ 자궁 근종과 각종 부인병에 좋다.

마음 쓰는대로 열리는 '삶의 길'

워싱턴에 계시는 여러분과 더불어 한자리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 만생의 생명이 바로 불(佛)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바로 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를 말하는데 종교라는 이름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두 알고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삶의 보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지구가 만약에 버스라면 우리는 한 버스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걸상 하나를 붙들고 내 종교니 네 종교니 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만큼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더 넓게 내다볼 수 있는,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종교가 다른 줄 알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기에 와서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항상 밤이나 낮이나 불이 올라오더군요. 그러니 각자 우리 생명의 근본 자체가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이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 있으며,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는 우리 몸 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중(中)세계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되는 건 굴려 놓으라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거나 공기가 없어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뚱이가 지구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생물들이,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다 지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서 대기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이 몸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천차만별들의 생명들과 의식들과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생명들이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한번 거기까지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누구입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과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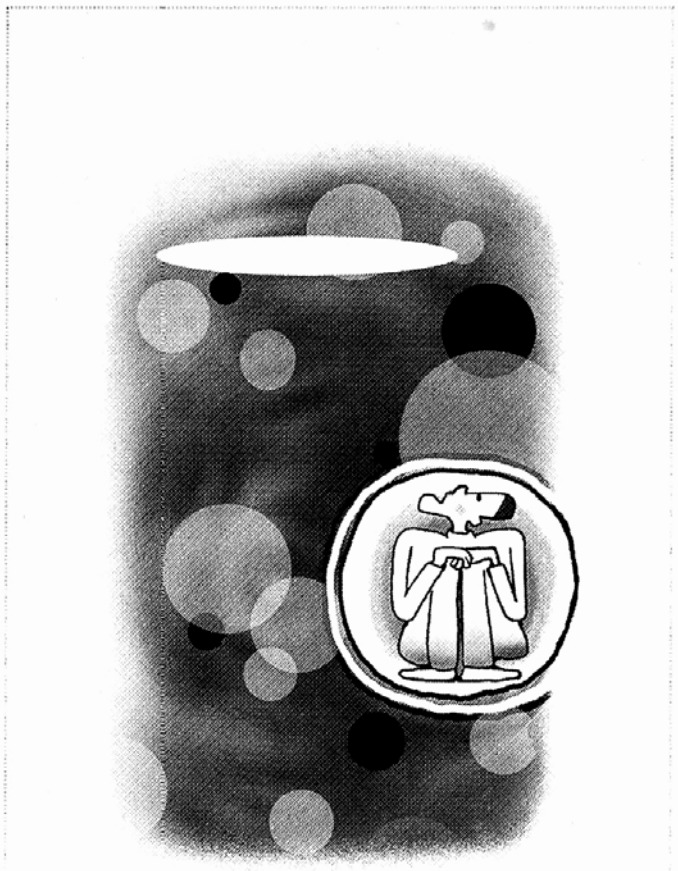
그나 그뿐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명의 근본,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이 자기 몸을 헝성시키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어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잉태가 돼서 나올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서 만나는 인연들이 한 몸에 모두 살고 있습니다. 한 몸에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즉 말하자면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인과성이나 유전성이나 업보성, 세균성, 영계성 이 자체가 때에 따라서 거기 전부 주둔해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바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남의 속을 아는 것과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 지를 아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몸에 주둔해서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 또한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기만 해고 도가 아니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와도 도가 아니요. 남의 마음을 유리알 들여다보듯 알아도 도가 아니요,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아도 도가 아니요, 심안으로 듣는다 해도 도가 아니요, 이것이 모두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신통이라는 통속에서 벗어나야 바로 대뇌를 거쳐서 사대로 통신이 되며 사대로 통신이 돼서 육진이라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새로이 말한다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되면은 앞서 입력된 것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엊그제 한 것을 알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된 대로, 차례차례 입력이 된 대로 거기에서 유전성도 나오고 영계성도 나오고 또는 세균성도 나오고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서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업이다 고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가 살면서 나오는 대로, 좋은 생각이라면, 좋은 일이 생겼다면 '주인공 감사해' 하고, 언짢은 일이 생기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는다면 그대로 그게 대뇌를 거쳐서 입력이 됩니다. 대뇌를 거쳐서 사대를 통하면, 통신이 되면은 즉시 찰나에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올 때 바로 거기다 되 입력을 한다면, 거기다 놓는다면 하는 소리를 입력이라고 합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놓는 겁니다. '해주세요' 가 아닙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입니다. 또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나에게 의사가 돼줄 수 있어 하고 일거수일투족 전부 거기다가 맡겨 놓고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잘된 거는 '감사해' 하고, 잘 안되는 거는 굴려서 즉 말하자면 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낫게 할 수 있어, 보디가드가 돼줄 수 있어, 이끌어 줄 수 있어, 해결사가 돼줄 수 있어, 모든 거를 그렇게 굴려서 놓을 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연방 입력이 되면서 연방 없어지니 없어지는 그릇은 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서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또는 업보성이나 인과성이나 세균성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그 자리에 통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자리는 일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와 더불어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거기에 통신이 되는 통신처니까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도 거기에서만이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림 · 최주현

하늘이 무너져도 겁내지 말고 나아가는 패기가 자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광대 무변한 마음 유익하게 돌려 쓰세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가 늠름하고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자탈 때 빼고, 늙은 후에 빼고 얼마나 살면서 행복을 느꼈습니까? 행복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저것 잘못되고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 다 빼고 나면 행복이란 그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패기가 자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마음이란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마음이란 이름을 하나 가져보지만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씁니까?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고 돈도 안내고 쓰는 마음이라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내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나를 유익하게, 말 한마디라도 유익하게 하고 또는 부부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대신 살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파주고 깨달아주고 잠자주고 똥눠주고 또는 밥 먹어주는 거 대신 해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각기 모두 마음을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묘한지, 여러분은 자식들이 잘못하면 배우는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저런다고 속상해서 "너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깡통 차려고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면서 욕을 합니다. 뭐 너는 평생에 그렇게 하고 지내려느냐 그러고 욕을 막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욕을 하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그냥 만난 인연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금 방에는 금이 있고, 넝마 전에는 넝마가 있고, 깡통 전에는 깡통이 있고, 무쇠 전에는 무쇠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말입니다. 상점에 가봐도 사과는 사과끼리 놓여있고 배는 배끼리 놓여있습니다. 모두 끼리끼리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연에 따라서 다 만난 인연들인데 만날 남의 탓을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만난 거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루어집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차원에 따라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남의 탓을 한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 따위로 하니까 망했다는 둥, 또 잘됐으면 내가 잘해서 잘됐다는 둥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애정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자꾸 싸우니까 점점 식어가죠. 그러니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누가 갖다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느끼는 겁니다.

공한 줄 알면 苦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끼리끼리 만나서, 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을 하고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가 싸우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싸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지 않는 거 같고 듣지 않는 거 같지만 그대로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나 그뿐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 모두가 파산이 되고 또는 행복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했다면 아내가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 것도 내가 있으니깐 저 남편을 만났으니 모든 게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준다면 잘못하다가도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부드럽게 해주니 더 잘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따뜻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니까요. 부인이 그럴 때 남편이 그러고, 자식이 그럴 때도 부모가 그렇게 하고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요놈의 자식, 어디 가서 자빠져 잤느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있었느냐"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로 붙들거나 행동으로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고장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죠. 마음으로 너하고 나하고 돌이 아닌데, 영을 만 개를 갖다가 한데 놓아도 영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돌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자식이다 부모다 하고 가설이 돼있는 것처럼, 가설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들어오게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식과 돌이 아닌데 너만이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너만이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살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관해주는 지극한 마음이라면 저절로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와서 착해질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 1: 스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명제가 '삶은 고가 아니다' 인데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로부터 은중경의 부모공경 또는 자기의 뿌리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깨달음과 주인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삶은 고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몇 마디만 더 해주시면 아마도 오늘 오신 여러분의 기억에 좀 회생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특별히 삶은 고가 아니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고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한 발 뛰어놓으면 한 발 없어지는데 무슨 거기 고가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활을 하는데 찰나찰나 화해서 이거 보면 저것보고, 저거 보면 이것보고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고가 있는 거지 고는 없습니다. 그러고 업보도 없구요.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팔자가 있어서 운명이 있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지 마세요.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고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영인데 어떻게 고가 그 영에 붙겠습니까? 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되고 잘되는 것뿐이죠. 없음이라는 건, 얼른 쉽게 해서 왜 없겠습니까? 생각을 잘못해서 고라는 애깁니다. 그러고 집착하는 게 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다면, 공한 걸 안다면 고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질문자 2: 이 먼길을 찾아오셔서 오늘 법문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자신이 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불교에서는 인과응보와 윤회가 철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 없는 생을 윤회를 거듭하여 왔건만 어찌하여 새로 태어나면 다시 전생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해심이 넓고 내 아님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당신은 만날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거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나쁜 게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더러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잠자코 있으면서 당신도 내 스승이야. 둘이 아니야. 잘못하고 잘하고 일일이 따진다면 이 많은 중생,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까 하구요. 우리는 본래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고, 같이 하는 거고 벌레까지도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과 모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볼 때에, 중간의 말한 건 생략하고, 우리는 그대로 마음을 쓰면 그 쪽에서도 반응이 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 풍족하고 내 마음이 사랑하면은 그 쪽에서는 꼭 사랑이 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도 많이 해 봤고요. 나는 내가 실천해보지 않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걸 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말로 떨어져선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 차원까지 됐을 때에 그 말이 필요한 거죠. 내가 딴 말을 하나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1998년 6월 7일 워싱턴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고령화사회, 불교 노인복지 어디까지 왔나

복지시설 수적 증가…인력·프로그램 부족

사찰마다 노인복지공간 확대
'스님 노후보장제' 서둘러야
연꽃마을·인덕원 등 모범운영

UN에서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규정짓고 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가 337만명(7.1%)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2년엔 고령사회(14%)가 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대다수 노인들이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중고(四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50만 5천여명의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이 존재하지만, 현재 노인 수용시설은 유료시설을 포함해 7천여명도 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가족, 가족해체 현상 등으로 노인부양은 이제 더이상 전통적인 효사상에 기댈 수 없게 된 만큼 국민연금의 재원확충, 의료 및 요양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전체가 노인부양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불교계에서도 효사상을 중시해온 종교답게 시급히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2일 제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본다.

■불교노인복지 현황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와 〈한국불교총람〉에 수록되어 있는 427개의 불교사회복지 시설을 분석하면 아동·청소년 시설이 약 47.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노인(23%), 지역주민(16%), 장애인(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시설 중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98개이다. 가톨릭의 85곳 보다는 많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밝히고 있는 개신교계 3백50여곳에 비하면 수적으로 열세다. 98개 시설 중 입소시설(양로원, 실버타운, 요양원, 그룹홈 등)과 이용시설(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노인상담기관, 경로당, 노인대학, 무료병원, 무료식당 등)이 각각 49개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양로원이 3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료병원 11.2%, 무료식당이 10.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록상 가장 먼저 설립된 불교 노인복지시설은 1952년 설립된 부산의 정화양로원이다. 1957년 제주양로원, 1961년 대구 화성양로원이 그 뒤를 이었다. 불교계 양로시설의 개설은 비교적 연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설립된 시설이 반을 넘고 있다.

이중 불교계의 노인복지사업을 이끌어온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과 '인덕원'을 들 수 있다.

1989년 설립된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에서는 무료양로원과 무료병원 등 24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재가서비스도 제공해 불교노인복지사업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1994년 법인을 설립한 인덕원(이사장 성운스님)은 96년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99년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치매노인단기보호소 및 주간보호소 등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조계사가 서울시노인복지센터를, 진각복지회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을 비롯 속초 신흥사, 김천 직지사, 김제 금산사, 서울 영화사, 수원 포교당, 남해 화방사, 여수 석천사 등이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거나 시설 수탁을 준비중이다.

불교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미비나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인구 중 불교인구가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노인 복지 과제

불교노인복지는 불교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스님 및 신도들의 인식 부족, 교단의 지원(제도, 시설투자, 전문가)부족, 자원봉사자(후원자) 부족 등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스님 노후보장=우선 시급한 일이 문중없고 상좌없는 스님들을 위한 노후보장제도 확립이다. 평생을 청빈과 검약으로 일관한 스님들에게 최소한의 수행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일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기존의 선방가운데 번잡하지 않은 곳을 택하여 노스님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구본사급 전통사찰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스님들의 공간을 마련하고 돌봐드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불교 터미널 케어 활성화='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임종 간호와 장례 서비스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사회복지학 박사인 선우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종합적인 불교 터미널 케어를 위한 과제로 △통일된 '불교 터미널 케어론'의 정립과 그 이념의 지시 △종교를 떠난 임종 간호 △납골당 설치 등 묘지문제 해결에 나설 것 △호스피스 상·조회 등의 조직과 네트워크화 △교단의 지도력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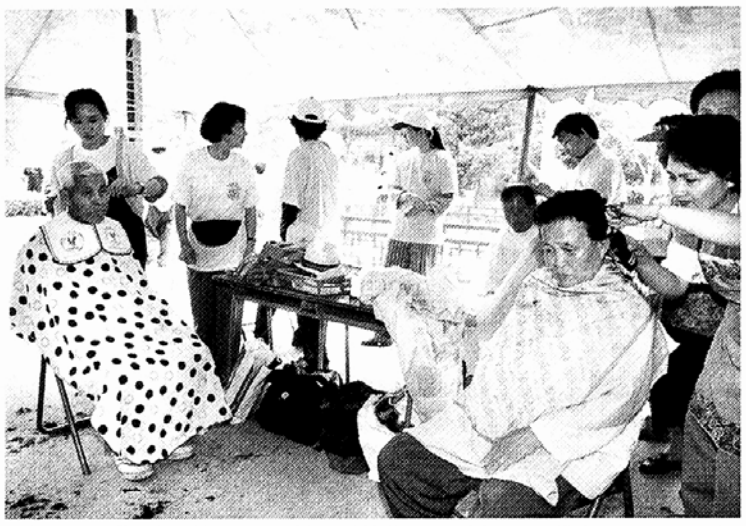
▶종단의 지원=이웃 종교는 전 수입액의 45%까지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교단도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교구본사 예산의 10%, 총무원 예산의 20%이상은 사회복지사업비로 책정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프로그램이 현재 거의 없다"며 "사찰이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그룹홈이나 염불당, 경로식당, 노인무료진료소, 역사탐방반 등을 운영하거나 사찰의 환경정리 및 미화작업이나 채전 가꾸기 등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찰을 노인복지 공간으로=사찰이 수행처라는 종교적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보할 경우 불교노인복지의 총량이 크게 증가함은 물론 사찰이 지역사회 노인복지 자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은 "전국의 사찰이 '효의 사회화 운동'을 실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마다 양로원 노인주간보호소, 노인무료병원, 경로식당, 노인대학 등을 설치 운영해 '사회적 효, 국가적 효'를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노년층 신도가 많은 불교는 또한 노인복지를 준비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 사진은 탑골공원에서 어르신 무료 이·미용 봉사에 나선 불자 자원봉사자들.

◆주요 불교 노인복지시설

시설명	연락처
합천 가야산실버홈	(055)934-0250
파주 관음대비원	(031)958-3043
제주 국청사복지원	(064)755-3131
군포 광명의원	(031)396-8092
청도 금강수도원	(054)373-1961
대구 기로원	(053)554-2391
광주 나눔의집	(031)768-0064
서울 노인사랑방	(02)720-9251
부산 대각자비원	(051)465-8307
대구동구복지의원	(053)963-3674
창녕 대원양로원	(055)536-2116
대전경로자비복지원	(042)271-9341
포천 목련의집	(031)534-6554
양양 보리수마을	(033)671-6808
아산 보문사복지원	(041)545-6531
대구 보살선원	(053)983-3677
보현행원노인요양원	(055)531-1733
서울 봉은노인대학	(02)516-5652
성남 자광원	(031)759-5320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	(053)474-9748
산마을	(02)737-2777
서구노인종합복지관	(042)488-6297
서울 광명의원	(02)414-6408
부천 석왕사노인대학	(032)663-7776
나주 선재원	(061)333-0108
해남 선화노인요양원	(061)533-9291
성리원	(02)743-4026
수원 성지원	(031)444-0730
화순 소향원	(061)373-6406
수원 광명의원	(0331)245-3676
안양 광명의원	(031)388-6534
용인 양지정사	(031)334-4688
양천구경로식당	(02)695-4611
여천 노인복지회관	(061)681-4367
용인양로원	(031)334-3677
울산 유관복지원	(052)297-1930
인덕노인복지회관	(02)385-8205
대구 자비의집	(053)255-3248
자비재가노인복지센터	(043)856-3695
화성 자제정사	(031)356-5799
전주양로원	(063)252-2539
부산 정화양로원	(051)332-3996
제주양로원	(064)747-8337
천불사 녹아원	(055)383-9212
경주 천우자애원	(054)745-4900
청주 광명의원	(043)221-0836
통도사 자비원	(055)383-3999
혜명 불교양로원	(02)802-6765
화순 호산마을	(061)730-8844
노원구 홍파양로원	(02)939-0735
대구 화성양로원	(053)766-4553
부산 황전양로원	(051)556-3373

사·부·대·중

천년고찰의 영화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일전에 모 잡지에서 경북 의성 월소동 초등학교 교정 한구석 철창 속에 갇혀 계신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 부처님은 경북 유형문화재 제176호로 지정돼 있는 성보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찰이 폐사되면서 부처님은 우여곡절 끝에 이곳 초등학교로 옮겨졌고, 다시 이 교도들의 무차별 파괴를 염려하여 철창으로 보호각을 만들었다 한다. 제대로 모셔지지 못하고 초등학교 교정에 방치되다시피 한 부처님 생각을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전국곳곳에 많은 폐사지가 있고 또 성보가 어처구니 없는 만큼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을 제행무상의 법칙이라 했던가. 폐사지도, 부처님도 온 민족이 불국정토를 바라던 사람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세웠던 것이리라. 세월이 흐르면서 의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오면서 사찰을 처음 세우며 국태민안과 불국정토를 기원했던 사람들의 숭고한 뜻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이들의 아름다운 뜻은 유물과 함께 남아있고, 또 지금도 그 뜻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나라 곳곳에는 새로운 불사를 일으키는 곳이 많다.

그러나 유서깊은 폐사지를 복원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성보를 다시 살리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즈음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에 관한 관리와 정보들이 한 창구로 결집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즉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냥 관심정도로만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한 일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먼저 각 본사가 성보박물관을 지어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에 모시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천년고찰의 영화와 고불(古佛)의 숭고함을 다시금 이 땅에 되살리는 것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목탁소리

천일정진하는 정토회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이어진 참회기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 통일교육,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통일돼지 저금통 사업 등등.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 산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 특별위원회'가 지난 해 3월 1일 24시간 정진을 시작한지 600일(10월 21일)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400일을 내다보는 기념행사를 갖는다. 13일(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열리는 '24시간 1000일 정진 600일기념 워크숍 및 통일한마당' 행사다.

정토회의 이번 24시간 철야정진은 민족 구성원이 야기한 공업(共業)에 대한 참회와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자비심, 남과 북이 하나되기 위한 통일교육 등으로 불교 통일운동사상 각별한 의미를 던져준 결사이다.

그간의 통일운동이 격렬한 투쟁지향의 이념논쟁과 시위가 주였다면 정토회의 이번 결사는 너와 내가 하나되는 화합과 동체대비의 소박한 통일운동이란 점에서 오히려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통일운동을 비롯한 그간의 불교시민운동은 장기적인 계획아래 일관성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지 못한 감이 적지 않다. 원대한 슬로건 아래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열정적으로 출발은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예산 및 인력, 후원 부족 등으로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 다반사였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언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 위주로 단체를 운영하기도 해 내실있는 불교시민운동의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토회의 이번 정진이 불교시민운동의 불교적 이념과 실천의 방향을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건강의천연가습황토달마



우주 달마의 기(氣)
자연 황토의 기(氣)
마음 정성의 기(氣)

성수로 달마의 전신을 적시면서 기도로서 합쳐졌을때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하여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주는 황토로 빚은 달마입니다.

(실물크기 300×200×150)

이런분께 권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마음먹은 일이 잘안되는분
◆나쁜꿈에 시달리는분
◆이유없이 시름시름 아픈 분
◆부부 정이 멀어지는 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황토 달마의 신통력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 금강토굴 호경 김휘철 합장 ☘

생일선물 개업선물
집들이선물 효도선물

◆수맥과 전자파차단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실내의 습도조절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각종세균 및 공기정화를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세멘트 건물의 독성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인체의 면역성을 키워주는 황토달마 입니다
◆황토달마를 곁에 두시면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생활의 건강 자연의 기(氣)를 충족시켜 줍니다

대구·경북 보급본부(딜러 및 대리점문의) 080-5858-080

"빛 한번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어린 수자령을 해탈시켜 드립니다."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어둠 속에서 빛도 한번 보지 못한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작은 생명들을 위해 나무 본존 지장 보살의 원력으로 천도제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태아의 생명들... 그 생명들이 지금 아빠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 우리들은 쉽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밖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아이들, 부모들의 원인 모를 병환, 여기저기 무너져 가는 사업체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함부로 버린 생명들의 저항입니다.
쉽게 버렸던 생명들을 이제는 강싸안아야 할 때입니다.

이 생명들의 한을 믿어주시고 현재 우리의 자식처럼 사랑하시어 좋은 세계(부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발원합니다.
핏덩어리 채로 죽어간 모든 생명에 다같이 참회하여 광명을 찾아줍시다.

선망 부모 천도제 상담

천도제 비용은 한 명당 3만원(옷, 과자, 우유)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648-5호
전화 053)957-9551, 954-9129
팩스 053)957-9551
휴대폰 011)398-9807

성불사 법장 합장

운세 30초 이내 적중(명리학)

공개감정(실전 30초)월요일~금요일 16~18시
전화상담 전문인 양성(기초가 된분은 누구나 가능)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자) 격국(60여종)
용신 명리학에 대한 질문. 30초이내 답변
역학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5년째 0600-0500
태극운세 1:1 상담 1월실적 전체 1위 1700여명
상담 시간 227시간
현재는 통장입금 상담 중
서울은행 24304-3396114 김진동 명리학으로

성의 체형, 얼굴형, 색맹, 한쪽 다리가 길다 짧다 허리가 가늘다 오리 궁댕이다 코에 점, 입술의 모양 등 신기한 이론입니다.
특히 태어난 시간을 확실히 찾아 줍니다.

◇ 위 치 7호선 장승백이역 3번 출구 100미터 전방 육교 옆 종로 약국 골목 입구 100미터 진입 거북탕 근처
◇ 전 화 02-822-0595
011-498-5067
051-758-3422

명리 연구인 김 진 동

명상과 음악이 만나는 (마음고운 선방)

작은 음악회

매달 정목스님의 진행으로 열리는
작은 음악회가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테마 음악을 클라리넷 연주로
감상하는 시월의 음악회는 명상과
음악, 가을을 테마로 한 시들을
감상하게 됩니다.

▣ 장 소 : 강남 신사동 4거리 지하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마음고요 선방
▣ 참가대상 : 누구라도 빈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 전 화 : 02) 548-0218
▣ E-mail : maumgoyo@hanmail.net

'해동의 神筆' 김생 "스님이었다"

충주불교연 · 충주시 · 김생연구회

金生寺터 문화재 지정 복원
기념관 건립등 선양사업도


◇김생연구회 손경주 회장이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김생사터에서 인근 민가 창고의 주춧돌로 사용중인 석축을 가리키고 있다.

◇김생 영정

신라의 신필(神筆) 김생(金生, 711~791)이 스님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시 왔다.

중국 명필 왕희지의 글씨를 능가하는 명필로 전해오는 김생. 예서, 행서, 초서에 뛰어나서 해동의 서성(書聖)으로 불리우는 그가 스님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김생이 스님이었다는 기록이 사실로 공식 확인된 곳은 바로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6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김생사(金生寺)터.

충주불교총연합회(회장 의천스님)와 충주시(시장 이시종), 김생연구회(회장 손경주) 등이 힘을 모아 김생사지를 문화재로 지정,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선양사업에 나서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주시는 김생사지가 지난해 12월 충북도 문화재(기념물 제114호)로 지정됨에 따라 8,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달까지 지표조사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발굴조사에 들어간다. 충주시는 7억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김생사지를 복원하고 김생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국민역사교육장으로 가꿀 계획이다.

명필 김생이 창건한 사찰이 있었던 김생사지는 항아리 형태의 석조물 1곽을 비롯해 주변지역 3,550평이 충북도 문화재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생사지의 기념물 지정사유는 〈수산집(修山集)〉의 김생사중수기(金生寺重手記)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통해 북진애(北津崖)~예성의 북쪽나루, 즉 현재 위치한 김생사지에서 두타행(頭陀行)을 닦았음이 고증된데 따른 것. 또한 발굴당시 당초문 암막새의 완형이 발견됐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사찰의 경영사실이 입증되고 김생이 쌓았다고 전해진 김생제방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충북도 기념물로 지정되게 됐다.

현재 남아있는 석조물은 방형석재(초석) 1매, 판석재 1매, 탑신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놓여있으며 건물의 동남쪽 기단부에 길이 12.4m, 높이 52~90㎝의 석축이 있다. 김생이 종이에 쓴 글씨는 지금까지 전해 오지 않으나, 백률사 석당기, 창림비, 화엄사 화엄경석각, 유점사 판액 등 대부분 사찰의 비문과 액자에 적힌 글씨가 전해지고 있다.

충주시는 그동안 김생연구회와 함께 김생사지의 사적지 지정을 위해 집자비 건립, 선양동산 조성계획 수립, 김생사지 발굴 및 지표조사, 김생서첩 발간 등을 추진해 왔었다.

김생 역사복원의 숨은 주역인 김생연구회 손경주 회장은 "김생은 청량사 경내의 김생굴(窟)에서 서도를 닦았고 김생사터에서 두타행을 닦은 스님이었기에 김생사가 복원되면 스님이 상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늦었지만 불교계가 김생을 스님으로서 재조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43)847-922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충주 중앙탑 탑돌이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신라 시대 중원 탑평리 7층 석탑(일명 중앙탑, 국보 제6호) 탑돌이 행사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

충주불교총연합회(회장 의천스님)와 중앙탑돌이보존회(회장 이선복)는 14일 두 단체 공동주관으로 탑돌이 행사를 갖고, 이 기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중앙탑돌이 행사는 지난 92년 남북통일 기원행사로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10회째. 특히 올해 행사에는 불교의 수행과정인 6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 방편, 원, 력, 지를 포함한 10바라밀을 지역 불교계와 시민, 충주여상과 충주상고 학생(350명),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60명) 등이 참여해 재연하게 된다.

두 단체는 탑돌이 행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이를 전국 규모 또는 세계적인 행사로 승격시키고 영산대재와 국민화합 열린음악회, 생태계 보존방생, 유등재, 전통놀이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인드라망 13일 화엄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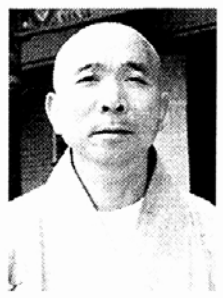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13일 오후 7시~이튿날 새벽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마음 다루기, 몸 다루기'를 주제로 제5차 화엄광장을 연다.

정해숙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前 전교조위원장)를 좌장으로,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화엄광장에서는 유수스님(정토법당 원장)과 김열권(위빠사나 수행자) 서혜란(화성 야마기시즘 실현지) 송방호(한국자연치유학회 총연합회 부회장)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씨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02)737-6181

김재경 기자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50여 회원 사찰 '군포교' 한마음


제천불교연 회장 석구 스님

"제5 탄약창 군법당 건립을 시발점으로 출 재가가 함께 군포교와 사회봉사 활동에 호흡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20년 전통의 제천불교총연합회는 일반 사암연합회와는 달리 50여개의 회원 사찰과 산하 재가 신행단체들이 함께 하는 단체다. 제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석구스님(정방사 주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천 불교계가 힘을 모아 제5 탄약창 군법당(60여평) 건립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수십만명의 장병 불자들이 논산훈련소에서 수계식을 갖고 자대로 배치되고 있지만 정작 대대급 이하 부대에는 변변한 군법당이 없어 신행은 고사하고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제5 탄약창도 연대급 부대다 보니 창고를 법당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5탄약창 군법당 추진

석구스님은 지역 군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법당 건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법주사, 구인사 등의 지원과 지역 불교계의 정성을 모아 직접 운력을 마다 않고 불사에 분주하다. 모두 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부족할 경우 스님과 장병, 신도들이 직접 몸으로 법당을 완공하겠다는 원력이다.

39사단 산하 군법당에 대한 지원 및 포교활동과 함께 제천불교총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불사는 조계종에서 위탁 운영중인 제천장애인복지관과 진각종에서 위탁 운영중인 제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이다. 회원 사찰은 주로 후원활동을, 제천 불교신도연합회와 불교어머니회, 제천불교대학, 운전불자회, 불교청년회 등은 복지관에서 재가 장애인을 찾아 심부름, 청소 등의 가정도우미 역할을 하거나 휠체어 봉사, 차량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을 번갈아 하고 있다.

보살행 실천 주민귀감

이중 제천불교신도연합회는 매년 4월 청풍벚꽃축제 행사장에서 유등법회를 열어 전통민속을 재연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돕기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체 법당까지 가진 제천불교어머니회는 지난 95년부터 매달 한차례씩 마을을 방문해 원생 목욕, 빨래, 공양준비, 주변청소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신도들이 정성껏 자비행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스님들의 역할임을 강조하는 석구스님은 "군법당 건립은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벌이는 무료급식과 목욕봉사 등의 활동 등이 불자들의 참여속에 원만히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김재경 기자

백두대간 '종교문화환경' 첫 조사

불교환경연대 22~26일

백두대간에 자리한 사찰과 그 주변 지역의 생태 · 문화 · 종교환경에 대한 조사가 불교환경단체에 의해 이달 하순부터 본격 실시된다. 그동안 개별 사찰에 대한 생태 및 문화환경 조사는 여러번 실시되었지만 백두대간 내 일정지역 사찰을 묶어 자연생태 및 수행환경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22~26일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지역의 생태, 문화, 종교환경에 대한 1차 조사에 나선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백담사 신흥사 낙산사 건봉사 봉정암 등 13개 사찰이 포함된 설악산 구역, 월정사 낙가사 대원사 등 6개 사찰이 들어있는 오대산 구역, 유일사 영은사 등 5개 사찰이 위치한 태백산 구역 등 3개 지역.

조사항목은 대상지역의 경관, 토지이용 및 훼손실태와 동 · 식물 식생 및 분포, 수행환경 훼손 실태, 불사 현황 및 계획, 사하촌 환경파괴 사례, 지질 및 지형 구조 파악 등이며 사진 촬영, 도표 작성, 여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불교환경연대는 자연생태분야 전문가, 산악인, 풍수전문가, 종교문화학자, 환경활동가, 자원활동가 등 30여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릴 방침이다. (02)720-1654

김재경 기자



내원정사 유치원 가족운동회

부산 내원정사 유치원(원장 정련)은 9월 27일 구덕 야영장에서 제14회 내원가족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동회에 참석한 13개반 580여명의 원아들과 학부모 등 1천여명은 '우리 강산 푸르게' 환경 마스게임, 아버지와 함께 달리기, 꽃가마 행차, 전래 동요놀이 등의 전체 경기를 통해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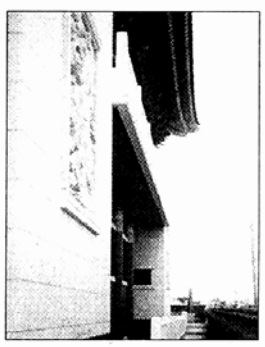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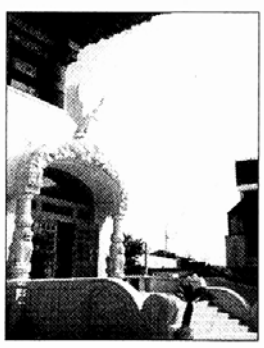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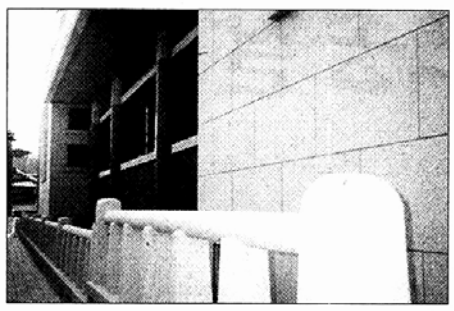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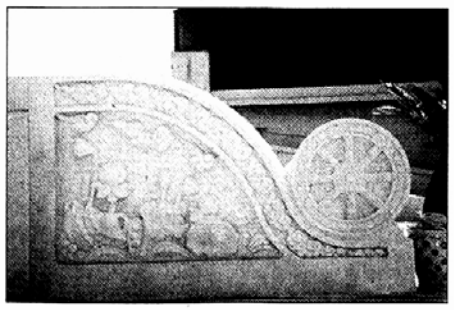
지하철 게시판 '자비의 말씀' 책으로 묶다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자비의 말씀' 게시판이 책으로 엮어졌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는 최근 전국 지하철역 1천 3백여 개소에 게시됐던 60여 편의 글과 전각 작품을 모아 단행본 〈풍경소리〉를 펴 냈다.

〈풍경소리〉는 삽화를 모두 고암 정병례 씨의 전각 작품으로 처리해 이미지의 통일성을 기했고,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익숙해 있는 분위기를 유지했다. 풍경소리는 99년 7월 지하철 포교를 시작한 이후 서울, 부산, 대구 지하철역에 자비의 말씀을 게시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오종욱 기자

❖ 석재 가공 및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

운문사. 봉녕사 부산해운정사
봉암사. 용운사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용수사. 청주 수도원 한마음선원 외...

합 동 석 물 (주) 대 표 탁 희 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 전 화 : 054) 955-8200~1 · FAX : 054) 955-8202 · 휴대폰 : 011) 509-1443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나는 지금 죄없이 살고 있는가

감성으로 보는 절

<17>지붕 위의 보살

어느 날 동물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을 공개한다는 공고를 냈다. '가장 잔인한 동물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러나 막상 그 동물원엔 어느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들만 졸거나 놀고 있을 뿐, 가장 잔인하다는 동물은 보이지 않았다.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한 곳에 이르니 네모로 된 큰 기둥이 하나 서 있었다. 그 기둥은 거울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곳엔 이렇게 쓰인 팻말이 하나 붙여져 있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 그 거울엔 구경 온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고 왕이 된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스런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에게 홀딱 반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다. 이에 분노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달려가 말했다. "가진 것이라곤 자식처럼 늘 품에 안고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한 사람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와, 손님을 대접하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아닐까

제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까워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군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허, 그거 마땅히 죽을 놈이구만." 그러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

지난 번 미국의 테러 사건은 참으로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나는 그날 그 사건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다. 비행기가 거대한 빌딩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이며, 그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TV는 아마 수십 번은 방영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했다. "와, 완전히 영화네 "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봐도 봐도 지치지 않을 만큼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다. 구경 중에서 제일 신나는 구경이 불구경이고, 가장 짜릿한 구경이 싸움구경이라고 하지? 남이 아니고 바로 '나'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산다. 아니, 나만큼만 살면 세상은 잘 돼 간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세상은 한없이 어지러운데—, 우리는 남의 잘못엔 추상같으나 자신의 잘못엔 지나치게 너그럽다.

어떤 분이 말한다. 동네 놀이터에 웬 남자가 매일 술을 먹고, 그러곤 누워 잔다고 한다. 불쌍하단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천 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것이 돕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줄줄 같이 흘리는 마음이 참된 마음일까? 나는 길거리의 걸인 앞을 지나가며, 또 지하철이나 공원 벤치에 누워 잠자고 있는 노숙자 앞을 지나가면서 늘 죄책이 든다. 왜 저들의 더럽혀진 손을 한 번 잡아주질 못할까? 내가 숫기가 없어서? 아니다, 마음으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높이 때문일 것이다.



◇대구 팔공산 북지장사 일주문 지붕.

절에 들어가면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에는 신장상이 있다. 그 신장은 대개 부처님께 굴복하여 불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인도의 토속신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천오백 년이 넘었지만, 우리 나라 토속신이 신장이 된 경우는 없다. 절 안엔 삼성각이나 독성각 또는 칠성각이나 산신각 같은 우리의 토속신이 절에 수용된 전각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는 수호신이지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은 아니다. 때로 절 앞에 장승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것도 불법을 외호하는 수호신이라 할 수는 없다. 우리의 토속신은 싸워서 이기는 쌈패가 신장이 아니고, 슬기와 지혜로 악을 물리치는 지혜의 인격신이기 때문일까? 그러기에 우리의 토속신은 무장상이 아니라 조금은 겁주는 듯하면서도 익살스럽고, 자세히 보면 슬기롭게 생겨 한없는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어느 날 대구의 팔공산에 있는 북지장사를 갔다. 멀리서 일주문 지붕 위를 바라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지붕 위에 웬 짐승 한 마리가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고 서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토속신이 된 보살이었다. 삼독에 빠져 삼악도를 기웃거리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원력을 세우고 지킴이가 된 보살이었다. 그리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지붕 위에 서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빌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잠자는 의식을 일깨우는, 그 짐승의 울부짖음을 가슴 아프게 들었다.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도 죄 없이 잘 살고 있노라고 희희덕거리며, 그 밑으로 헛뎃이 그리고 겁 없이 대웅전을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올바른 세상' 어디에 있을까

한글대장경의 세계

기세인본경

인도출신의 달마급다가 수 양제 대업연중(605 – 616)에 번역한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은 세상을 올바르게 일으켜 세우려는 근본에 관한 교설을 전체 10권으로 담고 있다.

제1권에서는 염부주품과 울다라구류주품의 상권이 설해지고 있다. 염부주품은 수미산의 남쪽에는 염부라는 큰 나무들이 있고 많은 산들이 있으며 코끼리와 용왕 등이 살고 있는 염부주가 있는데 이러한 세계들은 저 삼천대천 세계가 그러하듯 동시에 성립되고 동시에 부서지고 흩어진다는 것이다. 아 같은 변화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이 세계라는 것이 염부주 품의 내용이고 그 중생들이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 가장 뛰어나고 오묘하다는 세계를 그린 것이 울다라구류주품이다.

제2권에는 그 울다라구류주품의 하권과 4대주와 8만의 작은 주 및 온갖 산과 수미산 외에 척가라라는 금강으로 된 산과 중대철위산의 사이에 광대지옥과 각각 16개의 지옥이 있다는 지옥품의 상권이 설해져 있다. 지옥품은 3권에 중품이 4권에 하품이 이어져 수록됐다.

우주의 구성·변화 설명

안락한 인간세상 제시

제5권에는 태 난 습 화로 태어나는 여러 용과 금시조에 관하여 설한 제용금시조품과 아수라품의 상권이 담겼다. 아수라품 상권에는 수미산 동쪽으로 1천유순을 가면 대해가 있고 그 밑에는 너비와 깊이가 각각 8만 유순이며 일곱 겹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비마질다라 아수라국과 그 왕이 거처하는 궁전 등이 있다는 내용.

제6권에는 아수라품의 하권과 사천왕품, 삼십삼천품이 수록됐다. 사천왕품은 수미산의 동쪽에 유건타산이 있고 그 산 위에는 칠보로 장식된 제두리타천왕이 거처하는 성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남 북서의 세 군데에도 더 있음을 설하고 있다. 삼십삼천품은 수미산의 정상에는 삼십삼천의 궁전이 있는데 이곳은 각각 크기가 8만 유순이며 일곱 겹의 성벽과 일곱 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있고 노닐고 즐기는 데는 하등의 불편함이 없다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제7권에는 삼십삼천품의 중권이 제8권에는 삼십삼천품의 하권과 부처님이 전생에 제석이었을 때 아수라 왕을 체포하여 용서 한 일과 그와의 논쟁 사실 등을 그린 투전품이 설해져 있다.

제9권에는 세간의 중겁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올바른 행업이 없어서 그 수명이 10세를 넘지 못한다는 도병(刀兵)과 법행이 없어서 비 등이 내리지 않아 기근에 사는 사람과 정법을 행하고자 하나 질병을 얻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세계 등을 설한 겁주품과 화재 수재 풍재 등을 설한 주세품 및 최승품의 상권이 설해지고 있다. 최승품에서는 세간의 생성변화를 반복하는 가운데에 광음천에는 복이 다한 중생이 태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권에서는 이 상승품의 하권이 설해지고 있다.

기세인본경은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에 강당에 모인 많은 비구들이 천지의 발생과 그 파멸에 관하여 논의하고 또한 중생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주의 생성과 구성조직과 변화 과정 및 종말 등에 관해 설한 내용이다. 불교의 우주관을 설한 경전임 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은 삼천대천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의 여러 가지 타락과정을 인간의 죄업을 중심으로 묘사해서 주지시키고 이를 벗어나서 다시 안락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 등을 교시한 경전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